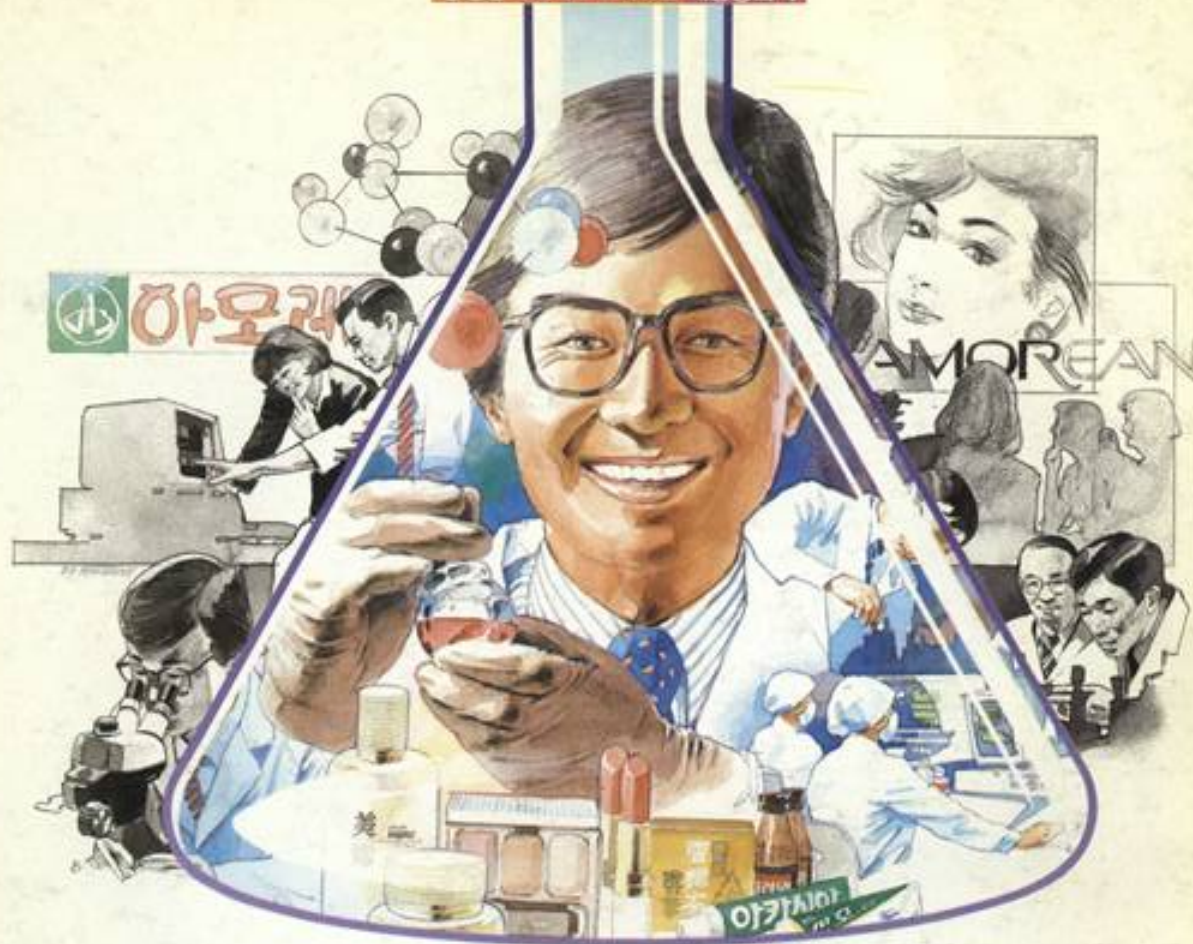




한 사람의 아름다움을 위해 244명의 연구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아름다움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태평양화학

인류의 아름다움, 사회의 아름다움을 위한 태평양화학의 노력은 90년대에도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첨단의 신소재와 생명공학을 응용한 심도있는 피부과학으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저자극성 화장품 뿐 아니라 각자 피부 특성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성분의 화장품,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가정생활용품,

식품 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제품을 연구·개발해냈던 태평양화학 244명의 연구원들—지금 이 순간에도 보다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중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태평양화학이 새롭게 펼쳐갈 90년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꿈과 희망을 앞당겨 실현시킬 것입니다.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
태평양화학

월간여성 12월호(통권 281호) / 1990년 12월 10일 (매월 10일) 발행 / 1964년 6월 13일 등록(서)라-7 1965년 2월 25일 제3종 우편물(나)인가 (우편번호 140-013)

여성

월간여성 12월호(통권 281호) / 1990년 12월 10일 (매월 10일) 발행 / 1964년 6월 13일 등록(서)라-7 1965년 2월 25일 제3종 우편물(나)인가 (우편번호 140-013)

사단 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KOREAN NATIONAL COUNCIL OF WOMEN

매스컴 모니터 세미나 대중매체에 대한 국민평가운동 방향

일시: 1990.11.15(목) 19:30 주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특집 I
매스컴 모니터 세미나
특집 II
소비자 보호 세미나



소비자 보호 세미나 우투과이라운드와 소비자의 자세

일시: 1990.11.20(월) 주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1990.12



●드론 카이저
스킨 컨디셔너 150ml 7,800원
●드론 카이저
아프터 셰이브 로션 150ml 7,800원
●드론 카이저
데오도란트 150g 7,800원

생활의 분위기가 그남자를 말해준다-카이저

자신도 모르게 하나하나 바뀌어가는
생활의 분위기.
그것이 한 사람의 남자를 완성시켜 간다.
은은한 향취로 느끼는 완숙의 남성미-
남성화장품 드론 카이저

DEBON
KAISER



●드론 카이저 아프터 셰이브 로션 150ml 7,800원 ●드론 카이저 스킨 컨디셔너 후레이 150ml 7,800원
●드론 카이저 스프레이 스킨 로션 150g 7,800원 ●드론 카이저 헤어로인 150ml 7,800원
●드론 카이저 헤어로인 150ml 7,800원

월간 여성

1990년 12월호

통권 281호

목 적 본회는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단체의 발전과 복지 사회를
이룩하는 일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 여성단체의 의견을 정부 및
사회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4 **여성/산동식**
성공의 미덕

특집 I / 매스컴 모니터 세미나
대중매체에 대한 국민평가운동 방향



6 주재강연 / 유재천
대중매체에 대한 국민평가운동 방향

9 토론 / 장금래
매스컴 모니터 단체임장

11 토론 / 최상식
제작자 입장

13 토론 / 이윤하
방송심의위원입장

15 토론 / 김가래
학계입장

17 종합토론

특집 II / 소비자보호 세미나
우루과이라운드와 소비자의 자세

24 주재강연 / 장의태
우루과이라운드와 소비자(의) 자세

27 강연 ① / 이재욱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과
대응방안

29 강연 ② / 김태준
금융개방과 소비자

31 강연 ③ / 민병호
광고개방과 소비자

33 이달의 여성계동향 / 홍은희

36 매스컴에 비친 여성 / 매스컴 모니터회
다양한 드라마 소재

38 1990년도 여성계를 결산한다 / 송영주

42 여성문화 / 박금옥
이야기 여성서 ①

44 우리들의 광장

49 협의회 소식

50 여성전문지 / 이인호
공인회계사

53 지방여성단체소식
경상북도지역

56 산업화원단체소개
통일여성안보회

58 주소록

섬김의 미덕

신동식 (스포츠서울 과학부장·문화 출판공보위원)



대학 시절 당시 여학생 처장이던 최이순 선생께서 "남을 잘 섬길 줄 알아야 한다"고 여러번 말씀하셨다. 당시에는 그저 어른들 말씀 잘 듣고 고분고분 순응하라는 뜻으로만 이해하고 말았었다. 신문사에 들어와 사회 밑바닥 인생부터 높은 자리 사람들까지 여러 경우를 취재하면서 선생님 말씀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었다. 집에서는 가장 잘 받들어 집안의 체통을 세우는 것 뿐 아니고 가장도 부인이나 아이들을 제대로 섬겨야 그 집안이 평안하고 번성했으며 직장이나 단체에서는윗사람을 제대로 받들고 아랫사람들도 합당한 대접을 받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이 눈에 띄게 달랐다.

서울외곽 대단위 빌라주택을 짓는 현장 취재를 갔을 때이다. 요긴한 부문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아랫사람들 모두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중간 간부라는 사람들도 서성대며 위에 대한 불평을 하고 있었다. 본사를 찾아 회사를 대표해 홍보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 현장에 대한 것을 물었더니 내용없이 길도는 대답 뿐이었다. 어쨌든 그 현장기사를 썼다가는 독자들에게 허위정보를 전하는 것이되고 아마도 그런 호화빌라 선전을 받고 계약하는 사람들은 큰 골치를 앓을 것 같은 예감이 있어 그기사는 그만두었다. 그 후에도 그곳 일이 계속 찼찼하게 머리속에 남았고 그 회사가 오래갈 것 같지 않아 관심을 가져왔는

데 생각보다도 빨리 그 회사는 부도를 내고 망했다. 당시 한참 주가를 올리던 회사였고 사주가 이름있는 집안 후손으로 주택건축여건도 좋은 편이었는데 그렇게 되었다. 그 주택지는 오랜 말뚝 후 입주자들의 노력으로 겨우 들어갈게는 되었지만 계속 말뚝이 많았다. 제 할 일을 제대로 하지않고 불평만하는 직원들을 둔 것이 사주의 인사잘못이기도 하지만 남의 회사에 들어가 일하게 되었으면 자기맡은 일을 성실히 하고 윗사람을 올바르게 받드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이 아닐까.

조그만 사회사업단체인데 돌아가며 책임자 자리를 맡고 누구든지 책임자로 선출되면 그 사람을 윗사람으로 봐듯이 대접, 아랫사람으로서 예의를 갖추어 대하고 밖으로 일처리 하는데도 윗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 단체는 하는 일마다 신뢰를 받아 순조롭게 발전했고 그 단체 사람들이라면 모두를 담내어 서로 모셔가고 싶어 야단이었다.

섬김에는 여러 뜻이었다. 되지도 않

은 일을 무턱대고 따라 받들라는 것이 아니다. 옳은 일이고 한번 정한 일이고 모두들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정성 들여 받들고 일이 되도록 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다. 우리들에게는 섬기는 미덕이 적은 것 같다. 개인이 개인을, 이웃이 이웃을 아끼고 위하는데 인식하고 지도자를 정하고 나서도 그를 인정하고 일을 하도록 돕는데 소극적이다. 특히 여성들의 모임에서 서로 위하고 아끼는데 인식한 것 같다. 누구든 다 같이 선출해 일을 맡겼으면 그가 일을 하도록 함께 힘을 합치고 그가 용기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밀어 주어야 한다. 오늘 여성들이 그래도 목소리 내어 할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선배들의 외롭고 고달팠던 지도력 덕분이다. 그분들의 공적도 섬기고 지금 함께 일하는 모든 여성 단체들끼리 서로 대접하며 아껴야 한다. 남성들은 서로 조직하고 함께 윗타리치는 습성이 있어 누가 장(長)이 되면 깍듯이 위하고, 그 사람 주변에 모여 일을 만들고 일이 되도록 힘을 모은다. 여성들 모임에서 아쉬운 점은 남성같은 결집력과 누구를 과감하게 북돋우는 아량이 부족한 점이다. 누구든 완벽한 사람은 없다. 부족한 점은 서로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보완하고 일이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 여성들이 해야 하고 이루어야 하는 숙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서로 섬길 때 힘을 얻게 되고 일도 되는 것이다. ♣

특집 I 매스컴모니터 세미나

대중매체에 대한 국민평가운동 방향

대중매체에 대한 국민평가운동 방향

우리나라에서 대중매체수용자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중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운동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징을 지니고 전개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첫째, 이 운동은 대중매체를 개선하기 위한 문화운동 내지 사회운동의 성격을 지녔다. 특히 대중매체가 제공하는 내용 가운데서도 가치와 규범의 문제에 대해 중점을 두어 왔다는 점에서 문화운동의 성격을 더 강하게 지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언론민주화 또는 정치민주화와 결부된 운동의 양상도 보였다는 점에서 사회운동의 성격을 띄기도 했다. 시청료 납부 거부운동이 대표적인 사회운동의 성격을 지닌 수용자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 수용자운동은 주로 두가지 방법으로 전개되었다. 그 하나는 수용자의식화 운동이라 할 수 있으며, 다른 말로는 미디어교육운동이 될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모니터운동이다.

셋째, 운동의 주체는 주로 종교단체, 청소년단체, 여성단체들이었다. 소비자단체나 정치단체의 일부도 가담한 바 있으나 주된 운동의 주체는 그러했다.

넷째, 운동의 주된 관심 영역은 여성문제와 어린이 및 청소년문제였다.



유재천 (서강대 교수·신문방송학)

다섯째, 수용자의식화운동이나 모니터운동에 참여한 수용자는 주로 중산층 주부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성격을 지닌 수용자운동은 또한 다음과 같은 한계와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볼 수 있겠다.

첫째, 운동의 대상매체가 주로 텔레비전에 한정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물론 최근에 이르러 청소년 잡지, 성인잡지, 만화, 비디오 등으로 운동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나 그동안 텔레비전이 주된 대상이었다는 것

이다.

둘째, 이 운동의 주체에 따라 관심의 대상과 목표가 상이함으로 인해 연대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운동의 역량이 분산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셋째, 사회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여론화작업에 소극적이었다. 운동주체가 간행하는 출판물이나 팸플릿을 통해 그 구성원을 중심으로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그치는 한계를 보였다.

넷째, 운동의 주체마다 수용자운동의 독자성을 강하게 내세운 까닭에 역량의 분산은 물론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큰 분열주의의 위험마저 내포하고 있다.

다섯째, 모니터운동에서 보듯이 전문성의 결여는 물론 표준화된 심의기준 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모니터링이나 분석이 이루어짐으로써 모니터결과에 대한 타당성과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 만들었다.

여섯째, 수용자운동의 참여자가 주로 중산층 주부였다는 점에서 운동의 관심사와 운동기반이 제한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운동의 주체들이 주로 중산층에 기반을 둔 운동단체들이었다는 점에서 계층대변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관심사나 그들의 참여는 배제됨으로써 수용자

운동이 추구할 수 있는 여러 본질적 문제들이 수용자운동에서 소외당해 왔다.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들을 전제삼아 대중매체수용자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된 소견을 몇가지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먼저 대중매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87년 6.29선언 이후 이른바 매체의 자율경쟁시대가 개막된 이래로 다양한 인쇄매체들과 비디오물이 홍수를 이루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음란출판물과 비디오가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의 매체환경은 크게 오염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사영방송을 허용하는 방송정책의 전환을 강행함으로써 앞으로 방송환경도 크게 변화할 것이 명확하다. 수도권 중심의 채널6 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사영방송을 허가할 방침을 밝히고 있고, 92년에 주한미군방송이 사용하는 텔레비전 채널이 한국정부에 이관되는 경우 이 또한 사영방송 채널이 될 전망이다. 지방 텔레비전 방송국이 허용되는 경우 현재의 MBC지방국을 독립시킬지 아니면 새로운 방송국의 설립을 허가할지 아직은 명확치 않다. 요컨대 곧 우리는 사영 상업방송시대를 맞게 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다채널 상업방송이 시작됨으로써 방송사간의 시청률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며, 그 결과 프로그램의 저질화가 불가피해질 때문이다. 나아가 정부는 CATV도 본격적으로 허가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같은 대중매체의 변화는 지금까지의 대중매체수용자운동에도 불가피하게 변모를 요청하는 조건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예컨대 수용자운동의 중요부본인 모니터활동에 있어서도 대상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인력과 자금과 같은 자원의 동원이 요구될 것이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동의 조직화가 요청될 것이다.

둘째, 이러한 매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몇가지 시도를 생각해 볼만하다고 여긴다. 그 하나로 대중매체수용자운동 주체들의 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으로 개별 주제별 특성화를 고려해 볼적이다. 협의체구성은 수용자운동의 역량을 제고시키고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이 협의체에는 개별 수용자운동체들의 대표들이 참여하며 이러한 운동에 관심있는 변호사, 언론학 전공교수, 사회저명인사 및 언론인출신인사들이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협의체는 개별 운동주체들이 분석한 자료와 지적한 문제점 및 시정권고사항을 취합하여 매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이를 위한 효과적인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현재와 같이 중복되고 분산된 수용자운동이 초래하는 비능률과 영향력의 감소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협의체는 수용자운동의 목표와 방향 및 방법을 마련하여 개별 운동체에 제공하고, 운동을 체계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협의체는 구체적인 매체분석방법 등을 마련하여 운동체들이 신뢰도와 타당도가 공인받을 수 있는 결과를 산출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구실도 담당할 수 있다. 이 협의체는 그 운영예산을 공익자금에서 보조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개별운동주체의 특성화는 운동체들의 성격에 적합하게 매체별, 주제별로 영역을 배정함으로써 가능하리라고 본다. 그렇게 함으로써 운동의 중복과 분산을 지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 또한 확보할 수 있고, 예산확보의 문제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수용자운동의 전문화가 요청된다. 이를 위해 몇가지 실행과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먼저 운동의 주제대상에 대한 명쾌한 개념정의와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예컨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유해한 '폭력' 내용을 분석한다고 할 때 과연 '폭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정의부터 확실히 내려 두어야 하며 폭력과 비폭력을 분류하는 기준을 자세히 설정해 놓아야만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 분석의 기준은 운동체마다, 심하게는 개인마다 주관적 판단에 따르게 될 것이므로 분석결과에 대한 신빙성과 타당성을 공인받을 수 없게 된다. 나아가 '폭력지수' 같은 것을 고안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어떤 만화나 프로그램의 폭력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시하면서 시정을 촉구할 때 설득력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성차별', '여성의 상품화', '음란' 또는 '의식'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여기에 소개하기에는 장황하기 때문에 생략하거나 예컨대 일본의 경우 사단법인 청소년육성국민회의가 제정한 방송·출판·영화관계 자율규제규정집을 보면 잡지의 표지에서 여성의 사진을 사용할 때 노출허용의 한계는 어디

까지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내복종류는 옷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등으로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매체에서는 자율규제의 기준이 되고, 수용자운동체에게는 외설 여부의 판단 근거가 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표준화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실제 작업도 용이해지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운동의 신뢰도, 타당도, 작업의 효율성 등을 위해 과학화하는 뜻이다. 이같은 규정이나 분석의 교범은 앞서 제시한 협의체가 각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같은 교범을 가지고 분석요원을 철저히 훈련한다면 수용자운동은 사회와 매체로부터 신뢰를 받게되어 영향력이 크게 향상되리라 본다.

네째, 수용자운동의 전개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방법의 활용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수용자운동은 매체에 대한 개선건의, 전시회, 가두캠페인, 팸플렛의 제작과 배포 등의 방법을 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그 같은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알 수 없거니와, 만약 그런 방법으로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 광고주의 상충불륜운동을 종교단체나 혹은 각종 사회운동체들과 연대하여 전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운동은 협의체가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음란, 폭력물의 사회적 관리체계를 입법화하는 운동도 전개해야 하리라 본다. 그러한 매체들을 없애려 하기보다 성인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계급 만드는 것이 효과적인 방향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포르노만 전문적으로 상영하는 영화관을 만들어 거기서만 성인을 대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면, 음란잡지, 성인용 비디오물들은 지정된 소매점에서만 성인을 대상으로 취급하게 법제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해야함은 물론이다. 이같은 유해매체의 사회적 관리리는 매우 시급하나 당국은 관심이 없다. 따라서 수용자운동이 이의 실현을 위해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수용자운동체들이 유해매체환경을 직접 감시하여 고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생각된다. 미성년자관람불가관정을 받은 영화상영관에 대한 감시, 만화가게에 대한 감시 등이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수용자운동은 신문과 같은 매체의 협조를 받아야하며, 방송위원회나 간행물윤리위원회 등과 연대하여 이루어 전개되어야 하겠다. 일본의 경우 신문, 방송, 출판, 영화, 음반업계가 합동으로 윤리문제를 논의하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다. 이같은 모임을 수용자운동 협의체가 주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체와의 대화통로를 만드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수용자운동의 하나인 매체교육은 초·중등학교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여긴다. 그 까닭은 어린시절에 가치나 규범교육을 받는 것이 일생을 두고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며, 어린이나 청소년들 자신이 올바르게 매체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수용자운동체들이 연대하여 초·중등학교 과정에 매체교육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학교마다 교육방송을 시청하거나 그것을 녹음·녹화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내에 폐쇄회로를 설치하여 시청각교육을 실시할 요청이 점점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담할 교사가 필요해 지는 현실이므로 그가 매체교육과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동안 종교계나 사회단체들에서 실시해 온 매체교육의 성과도 크다. 그러나 매체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계층과 사회인구학적 구성이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을 통해 매체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비할 바가 못된다고 하겠다.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상과 같이 매체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수용자운동이 지향해야 할 바에 대한 몇가지 의견을 진술하였다. 그 가운데는 현실에 건주어 너무 이상론에 치우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수용자운동체들이 운동의 주도권에 집착하지 않고, 독점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다지 어려운 요구들은 아닐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수용자운동이야말로 이 시대, 우리 사회의 환경개선을 위한 기본적 요청이며, 시민자구운동의 핵이라는 투철한 인식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또한 의도하지 않았던 중요한 부수적인 성과를 가져온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즉 수용자운동은 민주시민들의 자결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는 점이라 하겠다. ◆

사회단체의 모니터 활동은 방송사 자체의 모니터 활동과 성격을 달리할 수 밖에 없다

현재 매스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한간호협회, YMCA, YWCA,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대한가족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등이며 한국가톨릭 매스컴위원회, 메리놀선교회 미디어교육연구소, 서강대 커뮤니케이션센터 등의 종교단체, 교육기관에서도 매스컴 모니터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한겨레신문에서 자체적으로 매스컴 모니터회를 운영하는가 하면 불교신자들이 보리방송모니터회를 조직해 모니터 활동을 전개하는 등 매스컴 모니터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가 인쇄출판물광고에 대하여, YWCA가 여성잡지광고에 국한하여 모니터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에 언급한 단체에서 주로 모니터 대상으로 삼는 것은 TV이다.

오늘 매스컴 모니터 단체 입장에서 발표를 함에 있어 이들 단체를 모두 대변하기는 어려우나 모니터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김경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사회단체의 모니터 활동은 방송사 자체의 모니터 활동과 성격을 달리할 수 밖에 없다. 즉 방송사의 모니터 활동은 방송의 발전이 그 기본목표이다. 그러나 각 단체의 모니터 활동은 방송에서 보여주는 역기능적인 요소를 찾아내어 그것을 줄이도록 압력을 가함으로써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되어 주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모니터 활동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리나라 방송시청자운동의 시작을 대개 1980년대초로 보는데, 이는 1980년대 들어서면서 TV의 보급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전국민이 TV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되자 사회화 기관으로서의 매스컴의 영향력이 매우 커져 이의 역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단체의 관심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매스컴은 다른 사회화 기관과 달리 일방적이기 때문에 수용자의 수준에 맞춰 메시지를 고쳐가면서 제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같은 내용을 반복해 보여줌으로써 시청자에게 동일한 가치관이나 행동유형을 유발시키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단체나 사회단체는 자체 지향하는 목표에 반(反)하는 역기능적인 메시지가 매스컴을 통해 계속 표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목적 아래 시작한 사회단체

시청자와 제작자를 연결해주는 의사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모니터가 아쉽다



최상식

(한국방송공사 TV본부 예능1국 부주관)

모니터들에 대한 PD들의 의견

1. PD의 입장에서 모니터 요원들에게 가장 아쉬운 점은 그들의 시각이 편협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드라마 한 편에 등장하는 음주 장면이 몇 번이었으며 흡연 장면은 몇 회였다는 식의 글은 모니터들이 작품의 질과 품격을 향상시키려 하기 보다는 흠을 잡아내는 것만을 목적으로 드라마를 보지 않나 의구심을 일으키게 한다. 작품의 대의와 본질을 외면하고 지엽적인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는 태도는 드라마의 수준 향상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2. 모니터들이 드라마 제작의 현실을 모른다는 점도 문제이다. 드라마는 한 개인이 천재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드라마는 특히 텔레비전 드라마는 한 사회의 총체적 역량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그 품격과 작품성이 정해질 수 밖에 없다. 뛰어난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점이 어디냐는 질문은 먼저 사회적 역량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본 연

이 원고는 1990년 11월3일부터 이틀에 걸쳐 KBS 예능1국 PD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단한 앙케이트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조사로부터 정리에 이르는 기간이 짧았고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방법상의 미숙함이 드러났으며 전체적으로 제작진의 입장에서만 사안을 보려는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현장 실무진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커다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믿는다.

모니터들의 현재 역할에 대한 제작진의 견해

PD들은 모니터의 기능을 충고자, 감시자, 작품의 감상자로 생각한다. 드라마 기획과정과 제작과정에서 PD들은 모니터들이 시청자와 제작자를 연결해주는 의사전달자의 역할을 해주었으면 한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은 모니터와 제작자에게 모두 불만인 어정쩡한 상태가 아닌가 한다. 제작진의 입장에서는 PD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절실한 자극을 줄 수 있는 훌륭한 모니터 요원들의 출현이 아쉽다.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세제, 모니터에 대한 계속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며 내제, 모니터 모임을 활성화시켜 최소한 1주일에 1번씩 보고서가 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매스컴 모니터 단체들끼리 매체나 프로그램을 단체의 특성에 맞게 분담하여 모니터하고 사안에 따라 연계하여 활동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주로 TV모니터 활동을 중심으로 언급하였으나 광고, 월간지, 주간지, 영화, 비디오, 만화 등 일반 매스컴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사회단체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모니터 활동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단체의 목표 자체가 사회 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매스컴도 이에 대한 이해를 넓혀, 이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문화 조성과 사회 발전에 건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의 모니터 활동은 방송사 자체의 모니터 활동과 성격을 달리할 수 밖에 없다. 즉 방송사의 모니터 활동은 방송의 발전이 그 기본목표이다. 그러나 각 단체의 모니터 활동은 방송에서 보여 주는 역기능적인 요소를 찾아내어 그것을 줄이도록 압력을 가함으로써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다. 물론 결과적으로 방송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반드시 방송발전과 일치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방송사에서 기대하는 단체의 모니터 활동과 실제 단체활동이 잘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남녀평등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매스컴이 여성에 대한 비하, 편견, 고정관념 등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재사회화시킴으로써 성차별을 보편화하고 당연시하는 풍조를 개선시키기 위해 1984년부터 모니터링 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폭력, 외설, 사치 문제 등 국민 정서나 윤리관에 관한 문제, 어린이, 청소년 등 여성단체로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 주로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여러 모니터 단체도 입장이 마찬가지로 보여진다. 그 단체의 목적사업 또는 공익과 관련하여 역기능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모니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 아래 본회는 6년간 모니터 활동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보람과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본회가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을 방송심의위원회가 받아들여 '여성상에 대한 편향적 묘사 억제권고' 결정문을 각

방송사에 보내어 여론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시대적인 변화의 영향도 있겠지만 양 방송사에 시청자 상담실이 생겨나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방송사 자체의 노력이 생겨났다. 본회가 기회있을 때마다 주장해 온 여성방송인 양성문제가 아직 미흡하지만 초기 시작할 때에 비하면 많은 발전이 있었다. 여성 MC도 남성과 대사를 같은 비율로 나누어 하는 프로그가 많아졌으며 여성 아나운서도 아직 보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간대가 늘어나고 주말 뉴스를 단독으로 맡는 등 괄목할만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수년간의 활동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간 점검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첫째, 단체의 모니터 활동에 대한 제작자의 이해 부족으로, 제시되는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단체에서 모니터 활동을 위한 전담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모니터 활동이 어렵다. 세제, 모니터들의 시각이 모니터 단체 목적과 일치하지 않아 의견수렴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네제, 모니터 모임이 1달에 2번정도이므로 모니터한 내용이 시기상 뒤늦게 즉각적인 반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모니터 활동을 통해 방송이 우리사회에 유익한 역할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방송사, 제작자, 모니터 단체 간의 대화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둘째, 단체는 모니터 전달

후에야 평가와 검증이 가능하다. 이같은 전후사정의 고려없이 우리의 드라마는 선진국의 드라마에 비하여 지나치게 처진다는 식의 일방적인 태도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3. 전문성을 확보하는 일은 내부적 권위를 확보하고 외부적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다.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모니터링에서도 이는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니터 요원들이 드라마에 대한 최소한의 학문적 천착을 하고, 드라마라는 장르에 대한 확고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견을 표명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드라마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PD에게도 감명을 줄 수 있을 것이다.

4. 작업의 모니터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의 기준이 확립적이라는 것도 문제이다. 모니터들은 삶의 양태가 급격하게 바뀌어가는 현실속에서 보수주의의 잣대로만 드라마를 평가하려 한다. 삶의 전개양식은 온실속에서 자라는 화초처럼 평이하게만 전개되지는 않는다. 게다가 평이함을 드라마의 소재로 삼을 수도 없다. 항해의 이야기나 알콜중독자들의 이야기는 당연히 건전한 소재라고 할 수 없지만, 역기능적인 요소를 가지고 대리만족을 시켜주는 기능도 드라마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위의 견해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모니터 그룹에서 내리는 평가가 객관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겠다. 예컨

대, 특정 직업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비난 일변도로 쏟아지는 모니터들의 글은 모니터들의 기본적인 자세를 의심케 한다. 간혹 보이는 집단이기주의적 성향은 모니터들을 위해서나 제작자들을 위해서나 가장 먼저 없애야 할 부분이다.

6. 드라마의 소재에 대해 보이는 모니터들의 알레르기 반응은, 제작진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힘들다. 시청자는 불특정다수이다. 따라서 놀랄만큼 다양한 시청자들의 취향을 골고루 만족시켜 줘야 할 의무가 제작진에게는 있다. 최소한 대중이 바라는 드라마의 최대공약수를 찾으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한다. 그러다보면, 단순한 킬링타임용의 드라마가 제작될 수도 있다. 텔레비전 드라마를 적극적 선택의지를 지닌 관객을 대상으로 투사하는 영화의 기준에 맞춰 재단하는 일은 난센스다.

모니터들에게 바라는 점

1. 기초적인 지식을 갖추어주기 바란다.

모니터의 영역을 비평의 차원으로로까지 승화시키려면 요원들의 전문성 확보는 필수적이다. 이는 드라마와 모니터링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2. 제작여건을 감안해 달라.

드라마 제작이 종합적인 공동작업이므로 작품에 투입할 수 있는 자본의 규모,

기계의 성능과 효율성 등 작품외적으로 감안해야 할 점이 상당히 많다.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를 감안해 주었으면 한다. 꼬집고 비판하려는 태도보다는 드라마에 대한 애정 어린 충고가 더 필요하다.

3. 평가기준을 다양화하기 바란다. 공익성과 제도성에만 지나치게 치중하여 작품을 평가한다면 드라마는 무미건조해질 뿐이다. 드라마의 역기능적 측면과 오락적 기능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재가 어떤 것이냐는 문제보다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졌는가, 말하자면 작품의 예술성과 완성도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런지(이같은 기준에 의해서 작품을 평가한다면, 소재만 놓고 본다면 <대부> 같은 드라마는 제작되어서도 안되고, 더더구나 텔레비전으로는 절대 방송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4. 모니터들과 제작진과의 의사전달 통로가 넓혀져야 한다.

지면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만나는 관계가 아닌,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니터요원들이 제작현장을 지켜봄으로써 시청자와 제작자간의 거리를 좁혀줄 수 있고, 그들 스스로 드라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보다 설득력있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다. ◆

시청자단체의 눈초리를 가장 두려워 하는 방송계 풍토가 조성돼야 할 시기가 왔다



이윤하 (방송위원회 방송심의 위원)

신문이나 잡지 등 인쇄매체는 최소한도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야 접할 수가 있지만 TV나 라디오 등 전파매체는 그렇지 않다.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연령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TV나 라디오에 관심을 기울여 날이 갈수록 더욱 그 관심도가 높아진다. 특히 TV의 경우는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몇백이 때부터 비싼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다. 아마도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의 최초의 친구는 바로 TV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어머니 배속에서 받은 이른 바 태아교육이후 처음으로 받는 교육이 바로 TV로부터 받는 교육이며 TV로부터 얻고 있는 여러가지 지식이 최초의 지식교육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그만큼 오늘날의 인간들은 TV라는 마물(흔히들 TV라는 것을 문명의 이기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자동차를 흉기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듯이 TV를 마물이라고 표현하고 싶을 정도가 된 것 같다.) 앞에서 노예가 되다시피한 세상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TV의 공적에 대해서 자주 논란이 일어나곤 하지만 필자가 TV 저주론자

라 TV를 마물이라고 지칭한 것은 아니고 TV가 마력을 지닐 정도로 그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지난해 가을부터 동유럽의 여러 사회주의국가들을 휩쓸은 민주화 개혁이라는 거센 물결의 간접적인 가장 큰 원인이 바로 TV의 힘이었던 사실을 우리들은 알고 있다. 근 반세기에 걸쳐 가로 막았던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지고 굳게 닫혀 있던 철의장막을 활짝 열게한 힘은 핵무기가 아닌 바로 TV였던 것이다. TV가 우리들의 생활을 지배하고 좌우하는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한 오늘날에 있어서 시청자들이 방송내용에 대해서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나아가서는 감시자의 입장에서 힘을 합쳐 시청자운동으로까지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서 우리의 권리이며 또한 의무이기도 한 것이다.

인명을 살상하는 위험물이나 포악한 동물같은 것은 일정한 전문인력이 이를 감시 관리할 수 있지만 국경도 없이 공중을 날아다니는 전파를 통해 바로 우리를 안방속으로 끼어드는 TV

를 우리들이 감시하지 않으면 누가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서두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방송이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연령만 돼도 관심과 흥미를 기울이게 되며 그때부터 프로그램의 선호경향을 보이기 시작한다. 서너살밖에 안된 어린 꼬마가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며 자기 마음에 맞는 프로그램에 고정시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이때부터 프로그램의 비교선택 행위를 하는 것이다. 국민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TV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 시작하며 나름대로의 프로그램 평가는 정이 벌어지기도 한다.

TV는 양약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독약이 되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 양약을 보다 많이 공급받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방송업자들에게 독소가 들어있는 독약을 제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시청자운동의 본질일 것이며 운동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 민주화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방송을 비롯해서 모든 언론이 제구실을 못한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언론수용자운동이란 더더욱 엄두도 못낼 상황이었음을 우리들은 자탄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런 암흑속에서도 1975년도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그리고 동아방송에 대한 당국의 광고 탄압사태때 일부 신문독자나 방송청취자들의 격려광고 청탁이나 적극적 구독운동 등은 당시의 공포정치하에서 보여준 역사적인 언론수용자운동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며, 제5공화국 말기에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던 시청료납부



거부운동은 보다 조직적인 규모의 언론수용자운동으로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시대는 바뀌어 언론의 민주화시대가 열렸고 현대매스컴의 총아 TV만능시대가 왔다. 새로운 민영방송의 주체가 선정 발표되어 시끄러워졌고 방송계의 전면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종교방송 등 특수 FM방송이 세게나 늘어났고 TV도 새로운 VHF-TV 방송 외에 유선TV의 발족은 이미 그 방침이 발표되었지만 UHF전문 TV나 나아가서 위성방송의 출현도 머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청자운동의 본격 가동도 이제부터라고 생각된다. 양약이 보다 많이 공급될 것인지 독약이 더 늘어날 것인지 이제부터 본격적인 감시체제를 갖추고 시청자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지금까지 사회공익을 위해 활동해 온 사회단체나 여성단체가 특별히 방송에 대해 관심을 갖고 모니터 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기존시스템의 확대강화는 물론이지니와 더 나아가서 산재하고 있는 시청자운동단체가 연합한 전

국규모의 강력한 시청자운동단체가 나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80년대의 방송사 통제합이라는 폭거가 오늘날 방송제도의 대대적인 재개편작업이라는 썰지 못할 우를 범했지만 시청자운동단체는 반대로 강력한 하나의 단체로 통합될수록 좋다고 생각된다. 방송계는 앞으로 재개편이라는 대과제를 앞두고 다시한번 진통을 겪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시청자운동단체도 미리 정비 강화하여 방송계를 지켜보고 제도이탈이 없도록 감시해야 할 것이다.

지난날 암흑시대의 방송사들은 허가권을 쥐고 있는 당국이나 사찰당국의 감시를 두려워했으나 앞으로의 방송사들은 그 누구보다도 시청자단체를 제일 두려워하는 풍토가 이룩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와 같은 개별적인 단체활동을 하나로 집약한 강력한 시청자운동단체가 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시청자단체를 제일 두려워하는 풍토가 이룩됐을 때 우리의 방송은 가장 많은 양약을 공급해 주는 방송이 될 것이다. ♣

대중매체에 대한 국민평가운동의 반성과 과제

언론수용자운동을 중심으로

I. 머릿말

'대중매체에 대한 국민평가운동'이란 용어가 다소 생소하다. 제속 이런 용어를 쓸 것인가의 문제는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결정해야 할 것 같다. 다만 이는 언론소비자운동, 언론수용자운동, 언론감시운동 등과 같은 용어와 유사한 뜻을 지닌 것으로 보여지며 보다 낮은 용어로는 '매스컴 모니터 운동'을 지칭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어쨌든 '각종 대중매체를 대상으로 언론수용자들이 주체가 되어 국민운동적 차원에서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그 내용을 분석, 평가하는 감시운동'을 가리키는 용어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런 뜻을 지닌 크고 작은 단체들이 근자에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미 7~8년의 경험을 축적해 온 단체들도 있고 이제 막 그 출발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모임들도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부분 텔레비전 내용을 모니터 하는 모임이 가장 많고, 그 외에 비디오 테이프 및 출판·잡지·만화 등 인쇄매체의 내용을 모니터 하는 단체도 있다.

그 중에는 어느 정도 지속성과 체계성을 가지고 비교적 큰 규모로 운동을



김기태 (서강대 강사 · 언론학)

언론수용자운동이란 "대중매체를 올바로 이해하고 대중매체가 인간에게 미치는 각종 영향력에 대해 체계적으로 인식한 후 이를 능동적으로 선택·수용함은 물론 나아가서는 대중매체의 구조와 내용을 수용자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속적, 집단적 행동"으로 잠정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전개하고 있는 단체도 있고, 아직 성과는 없지만 의욕이 넘치는 단체들도 있으며, 모니터 방법이나 내용의 수준도 다양한 실정이다.

기술·제도 등 방송환경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시절에서 이들 운동단체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그 공과를 점검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실천적 과제를 모색해 보는 일은 의미 있는 과정이라 생각된다.

여기서 현재의 위상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언급되었을 것이므로 생략하고 유형 및 종류와 실제적인 문제점의 검토위에서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실천적 과제들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실천적 과제에 있어 학계의 입장이 학문적 차원에서 이론적 모형으로 제시되기는 어렵다. 단지 구체적인 실천사례들을 모아 체계화 및 유형화를 꾀하고 운동의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공동의 노력이 가능할 뿐이다.

II. 언론수용자운동의 종류 및

유형 - 평가운동의 위상탐색

언론수용자운동이란 "대중매체를 올바로 이해하고 대중매체가 인간에게

종합토론



사회 : 송유재
(이화여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사회 : 대부분의 세미나 토론이 이론을 위한 이론으로 그치는데 비해서 오늘 세미나는 다양하고 깊이있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방안들이 많이 나왔다고 봅니다. 이제 토론중에 나왔던 문제들에 대해 토론자들과 여러 청중들의 의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금래 : 먼저 주최측 입장에서 최상식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난번 저희가 근로여성문제를 다루는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기업주측에 참가를 간곡히 부탁드렸으나 결국 참석하지 않았습니. 오늘 이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최상식 선생님의 입장이 지난 근로여성세미나에 있어서의 기업측의 입장과 비슷한 입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세미나를 통해 깨달은 바는 대중매체 개선을 위한 여론화 작업에 너무 소극적이었던 점입니다. 대중매체의 여성차별문제를 다루면서도 직접적 반응을 위해 제작자에게 의견피력을 하거나 사회에 여론화하려는 노력이 적지 않았나 하는 점을 반성하게 됩니다.

저는 최상식 선생님의 말씀 내용 중에서 모니터들은 여성문제는 진보적 시각이면서 아동문제는 보수적이라는 말에 대해 해명을 하고자 합니다. 여성문제는 성인인 여성의 인권차원적인

문제인 반면에 아동은 판단력이 부족한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성과 아동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해서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상식 : 제가 말한 것이 의도한 것과 조금 빗나간 것 같군요. 아동들이나 청소년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고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등학생 대상이라고 작품을 만들면 고등학생들은 수준이 낮다고 보지않고 중학생·국민학생들이 본다는 사실입니다.

즉 제작자가 프로그램 제작을 하면서 대상을 선정하는 수준과 청소년들 자신들과의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너무 보수적이라 대상설정에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내용을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막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TV는 가장 젊은 매체입니다. 그중에 특히 드라마는 젊은 예술이라 할 때 끊임없이 진보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고 목표대상과 같은 수준이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청소년 프로그램에 있어서 지나치게 보수적인 것대로 평가하고 비교한다면 현실과의 괴리감이 생긴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송자(본회 매스컴 모니터) : 최상식 선생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모니터

미치는 각종 영향력에 대해 체계적으로 인식한 후 이를 능동적으로 선택·수용함은 물론 나아가서는 대중매체의 구조와 내용을 수용자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속적, 집단적 행동"으로 감정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결국 능동적·적극적 수용자용으로서 대중매체에 대해 수용자가 중심이 되어 기존의 구조와 내용을 변혁하고자 하는 언론수용자 주체운동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언론수용자운동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용자의식화 교육운동이다. 주로 깨어있는 언론수용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자라훈련을 통해 스스로의 매체수용능력을 기르도록 하기위한 실천적 교육운동이라 할 수 있겠다.

둘째, 언론모니터운동 즉, 언론평가운동과 같은 감시운동이다.

대중매체가 표현하는 메시지의 정확한 분석과 평가가 곧 언론에 대한 수용자의 의견을 표시하는 출발점이란 차원에서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확산되어 있는 종류이다.

셋째, 시민운동 또는 사회운동차원의 수용자운동이다.

이는 언론과 사회 또는 권력과의 관련성으로 보아 언론자체만을 상대로 개선운동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문제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사회 전체가 관련되어 있는 정치·경제적 구조변혁 차원의 언론수용자운동인 셈이다.

네째, 위 세가지 특성을 혼합한 운동이다.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혼합하여 운동을 전개하는 경우이다.

한편, 언론수용자운동의 유형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나눌 수 있다.

1) 운동전개에 소요되는 경비조달 방법에 따라

① 민간주도형 운동 ② 정부주도형 운동 ③ 혼합형

2) 운동의 활동 범위에 따라

① 지역주민중심의 운동 ② 전국민 중심의 운동

3) 운동의 성격에 따라

① 정치운동형 ② 문화운동형

4) 운동의 목표에 따라

① 수용자 의식화 차원의 운동 ② 언론감시차원의 운동 ③ 언론제도 감시차원의 운동 ④ 정치·사회제도 개선차원의 운동

5) 운동의 조직에 따라

① 상설조직중심운동 ② 일시적 또는 연대조직 중심운동

6) 매체별 속성에 따라

① 인쇄매체 수용자운동 ② 방송매체 수용자운동 등의 구분이 가능하다.

III. 대언론 국민평가운동의 실천적 과제

국민평가운동 즉, 매스컴 모니터운동의 문제점과 한계를 중심으로 실천적 과제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운동 조직화 과제

우선 각 단체별 내적 조직화가 필요하며 아울러 운동단체 즉, 운동조직간 외적조직화가 시도되어야 한다. 내적 조직화는 일정한 상설조직체의 운동이 필요할 뿐 아니라 조직으로서의 최소

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외적조직화는 운동조직체간 협의회 구성이나 동맹구성 등 연합 조직체 또는 연합기구의 설립 등을 의미한다. 물론, 조직화수준은 운동의 전개 수준과 함께 적절한 관계를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2. 운동의 전문화 및 체계화 과제
매체 모니터의 방법을 비롯하여 결과홍보 등에 이르기 까지 가능한한 전문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모니터 방법의 전문화는 구체적으로 모니터 목표의 개발, 모니터 교육의 내실화, 토론의 활성화 등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3. 운동의 목표 설정 과제
운동의 단계 및 수준에 따라 알맞게 목표가 수립,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한 운동참여자들이 쉽게 동참할 수 있는 목표여야 한다.

4. 운동의 인적자원 과제
주체세력, 연대세력, 참가세력 등을 적절히 구분하여 순발력있게 동원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준비해야 한다. 운동의 전개에 있어 성별, 연령별, 직업별, 결혼유무별, 전공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운동 구성원이 조절될 필요가 있다.

5. 운동의 실천방법
소극적 방법에서 적극적 방법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집단·조직적 차원으로, 합법적 방법에서 비합법적 방법으로, 온건한 방법에서 격렬한 방법으로의 수준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6. 기타

그 외에 다양한 종류의 운동과제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



터의 안목이 너무 편협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방송이 추구해야 할 가치 측면에서 공익성·오락성 중에 중요도를 차차면 공익성이라고 봅니다. 물론 오락성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송이 너무 오락성에 치우치다보면 방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가치관단을 함께 있어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의 차이이지 관점이 편협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방송을 통한 향락·패락추구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흡연 장면 하나하나에 까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드라마를 볼 때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막대한 과급효과를 가져 온다는 점을 감안해 저희 모니터들은 세심한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상식: 드라마를 평가함에 있어 어

떤 것이 좋은 드라마인가를 먼저 결정한다면 얼마나 재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척도가 될 것입니다. 재미가 있어야 많은 시청자들이 보게되고 그 드라마를 통해 우리의 생활까지 풍족하게 된다면 그 이상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항상 건전한 드라마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또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드라마가 무엇인가를 곰곰히 생각하게 되는데 이 말만큼 제작자들을 움아매는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자신 이러면 안된다. 저러면 안된다는 윤리·도덕적인 규제를 20여년간 받고보니 이제 마음놓고 만들고 싶은대로 만들라고 해도 이미 스스로를 규제하는 선이 있어 그렇게 만들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윤리위원회나 각종 모니터들의 질책을 받아 걸리저서 만들어지므로 우리

TV 매체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비교적 건전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모니터들이 편협된 사고로 모니터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기준설정에 명확성을 기해서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에서 한 말입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의 키스장면은 모니터 사항이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의 키스장면은 지적사항이 되는, 기준이 애매한 모니터 내용을 제작자들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집단이기주의 성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드라마에서 특정한 직업을 가진 출연자를 내세우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뚜렷한 직업을 다소 불만족스럽게 표현하면 그 직장인들이 힘을 합쳐 항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드라마의 등장인물의 직업을 애매한 직업으로 표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청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파악이 어려워 사실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드라마를 시청할 때는 집단이기적인 성향을 배제하고 대범하게 보아달라는 것이 저희들의 희망입니다.

예를 들어 회합극의 오이디푸스는 자기의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되는 운명의 소유자로 나오는데 윤리적 잣대로 보면 그런 드라마는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를 명작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험릿 또한 마찬가지로입니다.

드라마를 평가할 때 드라마의 소재나 지엽적인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말하고자 하는가, 인생의 어떤 점을 보여주는가 등의 내용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태: 오늘은 일정한 드라마 프로그램에 대한 공방은 아니고 매스컴 모니터의 운동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토론 회인데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드라마 모니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식 선생님은 드라마가 궁극적으로 전달해주는 내용이 인생의 가치나 이념을 심어주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 말씀은 드라마는 종말까지를 보고 스토리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지론에 따르면 연속극이 50화나 100일씩 방영이 되어도 종말까지 보고 평가해야지 중간에 모니터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드라마 중간에 내용이 조금 아하든, 잔인하든, 향락적이든 간에 그 작품이 종국에 준

교훈이 무엇이며 무엇을 보여주었는가를 평가하기만 하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모니터들은 대개 세가지로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떻게 그렸는가, 즉 형식에 관한 비평으로 여기에 담배피는 장면, 음주장면, 소리의 고저 등을 비평합니다.

둘째,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는가를 보는 내용 비평으로 최상식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세째, 위의 두개를 관통하는 상황으로 왜 그런 프로그램이 제작되었는가, 시간대 편성은 적절하였는가를 보는 비평입니다. 따라서 모니터는 두번째 내용만을 비평하는 것이 아니므로 드라마의 과정과 전개중에도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방송이 보수성을 갖고 있다는 점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매체구성상 방송은 다른매체보다 보수성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이나 잡지 등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서 혼자 볼 수 있는 매체이고 또한 VTR도 선택의 여지를 갖고 있는 반면에 TV는 선택의 여지없이 누구에게나 공개되고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택성이 많은 다른 매체보다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요청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수성과 집단이기주의로 인해 제작현장에 있으면서 그로 인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는 80년대 후반부터 시청자 운동단체가 본격적인 활동을 했다고 볼

때 60년, 70년, 심지어 80년대 초반까지는 한국의 사회구조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운동단체나 제작자들간에 연대해서 헤쳐 나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오해란(본회 기획연구부장): 여협 모니터모임은 항상 매스컴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방송심의위원회에 보내 왔습니다. 이로써 방송심의위원들께 우리의 의견이 전달되리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윤하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저희 생각이 좀 잘못되었었구나 하는 느낌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방송심의위원회가 민간단체의 모니터모임에 비해 어느 정도의 제재력을 가진 기구이니까 민간단체의 모니터 사항을 수렴해서 심의를 해준다면 좀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윤하: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없는 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심의위원회는 상근이 아닙니다. 방송심의위원회는 9명의 인원이 각계각층을 대표해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기간은 일년으로 위촉을 받습니다. 심의위원들은 방송심의위원회 심의국에서 일주일동안 방송된 내용 중 지적된 사항을 심의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그것이 심의대상이 되는 지를 보고 심의규정에 저촉되었다면 경고나 주의, 사과같은 제재조치를 취합니다. 이 정도의 활동을 하는 것이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보고서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받아보지 못하고 간혹 개인이나 단체들의 이의신청이 있을때만 별도로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심의국에서 발견하지 못한 내용이 모니터

터 단체들의 보고서에 있을 때에만 심의대상으로 선정되기때문에 그때에만 단체들의 모니터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최상식 : 저희 KBS에서는 여성단체 협의회의 모니터 내용에 대해 상당부분이 지침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음주, 흡연장면을 줄이고 여성차별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생각하여 제작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협의 모니터가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윤하 : 모니터 결과보고서가 일간신문에도 게재된다면 더욱 바람직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위해서 시청자운동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힘을 키워야한다고 봅니다. 즉 각 모니터단체가 현재의 산발적인 단체별모임에서 전국적이고 종합적인 단체가 되어 일간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되고 전문지도 발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상식 :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방송의 TV드라마 작가는 거의 여성들입니다. 이들 여성작가들을 초청해서 드라마 내용상에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과 여성차별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면 여협에서 기대하는 효과가 빨리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금래 : 그런 생각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PD분들이야 작가가 써 준 원고를 제작하는 것이니까 이자리에서 작가분들이 받아야 할 화살까지 받을 필요는 없는데 오늘은 다른 화살까지 맞고 계신데요.

저희가 여성작가들을 모시고 간담회

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여성이라고 해서 다 여성에 대한 차별문제에 대해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여성작가들에 의해 많은 드라마가 쓰여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해서 여성차별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가질 수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재천 교수님께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모니터 회를 운영하면서 단체간의 연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정식으로 매체수용자운동협의회까지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가능한지, 또 외국에서 실시된 사례가 있는지를 소개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재천 : 제가 여러가지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혹 너무 이상주의적인 발상일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먼저 매체수용자운동을 하는 여협, YMCA 등등의 기관의 대표가 모여 역할을 모아야 하는 이유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번의 회의를 거치고 또 외부의 의견을 들으면서 준비하면 협의회 구성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임한다면 장소나 예산문제 등은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각 개별단체의 공익자금신청은 어렵지만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익자금을 신청하면 이용하기가 용이하고 그 기금으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고 봅니다.

이문희 (본회 매스컴 모니터) : 최상식 선생님께서 모니터들에게 기초지식을 갖추어 달라고 요구하셨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모니터를 하기위해 기초지식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보다 먼저 시청자로서 느끼는 그대로의 감정에 의한 모니터 또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상식 :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니터하는 단체가 공식적인 힘을 가지려면 개별 개별의 기지에 찬 모니터보다는 방송의 과정을 이해하면서 격식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원고는 제작자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른측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표현이 있다는 점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숙 (본회 매스컴 모니터) : 제작여건을 감안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일주일이나 이주일 분량의 방송내용을 하루에 녹화해내야 하는 방송국 자체내의 여건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시청자의 입장에서 언제까지 그런 여건에서 만들어진 졸속 드라마를 보아야 하는지, 또 제작자들은 이의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식 : 사실 연속극의 80% 정도가 일일스튜디오 녹화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랜 관행과 습성을 극복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도 하고 협제도 하면서 하루에 녹화했던 것을 이틀로 연장한 프로그램들

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특집이나 미니시리즈 프로그램 등은 일반 드라마보다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조금씩 나아지는 추세입니다.

모니터 여러분들이 방송매체의 총경비중에 방송 자체의 내용에 더 투자를 해야된다고 방송국에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와 시청자들을 동시에 도와주는 길이라고 봅니다.

김금래 : 최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대화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실감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KBS가 돈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작과정이나 여건상에 열악한 상황에 있다는 점을 알게 됨으로써 모니터들이 제작

자들을 도울 부분이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재천 : 드라마 뿐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의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방송은 예산의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NHK를 예로 들면, 두사람이 식탁에서 밥을 먹는 한 장면을 찍는데도 연출자의 마음에 들 때까지 여러번 계속해서 다시 찍습니다. 이 이야기는 N.G.를 계속 내면서도 필름을 아끼지 않고 찍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30분짜리 방송을 위해 며칠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N.G.를 내면 필름의 손해가 나니까 될 수 있는 한 대충 넘어가고 또 한꺼번에 며칠동안의 드라마 내용을 찍으니 좋은 작품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작여건과 상황에서 현재의 방송수준을 내보내는 우리나라 PD들은 천재라는 생각도 가끔은 해봅니다.

그러나 모니터나 비평은 이러한 제작여건을 감안해서 봐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졌던지 만들어진 작품자체가 문제의 대상이지 그 과정이나 예산 혹은 인력이 모니터나 비평시의 감안대상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상호간 대화를 통해 그 배경에 대해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비평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며 비평은 사회에 던져진 작품만을 다루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김기태 : 유재천 선생님 말씀에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좁은 의미의 모니터는 프로그램을 보고 프로그램에 나타난 내용을 판단하는 것으로 제작의 여건을 감안해서 모니터를 하기로 어렵습니다.

앞으로 모니터들이 역량을 키워 모니터 대상이 프로그램 분석이나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광의의 모니터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방송내용 중 드라마의 편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고, 산술적인 평가이긴 하지만 제작여건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제작비가 많이 드는 드라마의 편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다른 드라마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제작의 여건을 고려하는 모니터를 할 수도 있다는 애깁니다.

앞으로는 프로그램 자체의 모니터활동에서 시각을 넓혀 드라마의 편수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민영이나 상업방송이 본격화될 때 더욱 심화되리라 봅니다.

또 수용자운동의 조직화 부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은 전국적인 시청자협의회는 많지 않고 주로 주제별로 주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어린이의 건강을 위한 건강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보는 협의회 혹은 순결동맹 같은 곳에서는 성윤리에 관한 내용만을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협은 여성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독특함을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각 개별단체는 독자성을 갖고 있으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사회적 문제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만 공동으로 대처하는 이원화된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업방송이 일반화된 미국과 일본의 수용자운동과 공영방송인 영국의 수용자운동은 성격이 다르므로 한국의 수용자운동의 방향도 한국의 방송제도와 깊이 관련이 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민영·상업방송이 시작되면 수용자 운동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어떤 대응방식을 갖추어야 할 지를 생각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김창숙(본회 매스컴 모니터): 지역시 모니터 입장에서 최상식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PD분들이 모니터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중 많은 부분을 저희 스스로도 느끼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수용할 자세가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적 지식습득을 위해 교육받을 기회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모니터들의 노력에 비해 제작자측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 주실지를 묻고 싶습니다.

최상식: 사실 저희들도 일반 시청자의 수준보다 방송을 하고 있는 소위 전문인이라고 지칭받는 저희 수준이 더 낮은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도 해봅니다.

또 방송의 주체로서 방송의 수호자로서 의견수렴을 폭넓게 하고 않고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의 의견만으로 방송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등의 염려도 해 봅니다. 따라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모니터그룹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의사소통(communication) 체계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의 억울한 점도 말씀드리고 모니터들의 의견도 받아들여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협력체제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또 제가 일본에 가서 느낀점인데 일본의 TV방송을 보면서 저희 방송을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본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다는 것으로 방송을 통한 문화식민화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이제 우리도 육신을 병들게 하는 음식이나 환경의 소비자운동보다 정신을 병들게 하는 방송이나 매스컴의 소비자운동이 더 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모니터들의 자질향상이나 사명감 또한 확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 오늘 세미나는 매체수용자운동의 협의회 조직에 대한 구체적 방향 설정이나 공익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토론에 다른 모니터 단체회원들이 좀 더 많이 참석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토론회 내용이 책자로 정리되어 다른 단체에도 전달되어 앞으로의 활동에 도움을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논제를 가지고 발표해 주신 유재천 선생님과 토론자 내분, 그리고 경청해 주시고 토론회에 활발히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종합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특집 II 소비자보호 세미나

우루과이라운드와 소비자의 자세

우루과이 라운드와 소비자의 자세

우루과이라운드는 여덟번째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1986년 9월 Punta del Este라는 우루과이의 한 휴양도시에서 출범하였다. 이 협상에는 100개국 이상이 참가하여 15개의 많은 의제를 대상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12월 부쉬설 각료회담에서 종료될 예정이다. UR의 근본적인 취지는 교역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들이 고수해야 될 소위 다자간 규범 또는 규칙을 확립하며 국제교역의 확대 및 자유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취지에 따라서 UR 협상에서는 첫째, GATT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불합리한 규칙을 개선하고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며 둘째, 이제까지 다자간규칙의 적용대상으로부터 제외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개도국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온 농산물, 섬유분야를 협상대상에 포함시키고 셋째, 국제교역에서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선진국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서비스, 지적소유권, 외국인투자조치를 신의제(New Issues)로서 채택하고 있다.

UR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내시장은 외국에 크게 개방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가 인하되고



장의태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상태에서 국내시장이 개방되면 외국의 생산자들도 이를 악용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므로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비관세 장벽이 낮아지며 지금까지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보호되어 왔던 농산물, 서비스분야에서도 순차적으로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국내농업, 서비스분야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국내시장의 개방,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진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가 UR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국내시장이 협소한 우리나라 경제의 입장에서 지속적 경제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GATT의 자유무역체제는 교역의 이점을 활용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며 둘째, 다자간 규범의 확립은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고 협상력이 약한 국가에게는 유리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UR에서 추구하고 있는 다자간규범의 확립과 국제교역의 확대 및 자유화를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점은 소비자의 이익의 증진이라고 볼 수 있다. 관세의 인하, 수량제한 또는 수입허가제도와 같은 비관세장벽의 완화, 외국기업의 국내진출 허용 등을 통하여 국내시장이 개방되고 교역이 확대되면 소비자들에게는 공산품

뿐만 아니라 농산물,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가격, 품질, 다양성 등의 측면에서 소비선택의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이다. 또한 국내시장의 개방을 통하여 국내상품 및 서비스가 외국상품 및 서비스와 경쟁을 하게 되고 소비선택의 기회가 확대되면 이는 결국 장기적으로 국산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이처럼 소비자들은 국내시장의 개방과 교역의 확대로부터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소비행태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외국산 상품들이 수입되어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특히, 고가의 사치성 수입제품의 급격한 소비증가는 과소비라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외제선호성향은 크게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의 각성이 촉구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소비선택에 대한 규범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선택의 규범적 측면 강조와 외제품 불매운동 등은 외형적 명분에 그칠 뿐 실질적으로 얼마나 소기의 성과를 이룩하는 의문인 것이다. 왜냐하면 소득분배의 문제, 불로소득, 지대추구활동, 지하경제 등 부 및 소득창출과정에 내재하고 있는 불공정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과소비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간과되기 쉬운 중요한 요인은 소비자보호의 미흡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의 기본권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는 소홀하게 취급하면서 소비자의 규범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것이며 따라서 소비자들의 자발적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외제선호성향이 우리 국민들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의문은 왜 우리 국민들이 외국산 제품을 선호하게 되었는가이다. 아마도 중요한 이유는 국산품이 외산품에 비해서 가격, 품질, 다양성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열등하였으며 이러한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품질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열등해도 국산품 사용은 국가경제를 위하여 소비자들이 지켜야할 규범으로서 강조되어 왔으며 이와같은 소비자의 규범적 측면은 가부장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우리 사회에서 특히 유교적 유습으로 인하여 공적이익은 사적이익에 우선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아마도 공익이 우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은 과거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현재 우리 사회는 커다란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자본주의체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공익의 추구만을 요구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며 공익과 이익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소비자들의 외제선호성향은 국가경제를 위하여 바뀌어야 한다는 규범적 또는 공익적 목표의 추구는 소비자보호라는 개별 소비자에 대한 사적이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 효

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보호는 미흡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에 소홀하였던 것은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자본축적이 미약하였던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 주력한 생산자 위주의 제도 및 정책에 연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출주도형 경제개발 전략은 수출에 대해서 막대한 보조를 제공하는 한편 국내시장은 수입경쟁으로부터 보호하였기 때문에 내수제품은 수출품에 비해서 품질, 가격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매우 열등하였다. 부자자원이 크게 부족하였던 개발초기단계에서 통화증발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이로 인하여 강제저축을 결과하였다. 국내시장에서 독과점 또는 불공정행위는 엄격하게 규제되지 않았으며 간접세 위주의 조세제도는 소비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발전은 소비자들의 희생 위에서 가능했다고 보아도 과장은 아닐 것이다.

생산자위주의 제도 및 정책은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는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경제성장 및 발전에 따라서 그 역작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시장보호, 신규기업에 대한 진입제한, 시장을 분할하는 각종 규제 등은 담합, 독과점 등 불공정행위를 유발하고 있으며 더욱이 소비자보호가 미흡하여 소비자들의 소위 대항력(Court-levelling Power)이 미약한 상태에서 국내생산자들은 국내시장에 안주하여 독과점 이윤을 추구하며 제품품질의 개선, 기술개발, 국제경쟁력 제고 노

력에 소홀히 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생산자위주의 제도 및 정책을 지적하고 소비자보호 및 소비자의 대항력을 균형있게 고찰하는 것은 소비자의 이익 뿐만 아니라 결국은 국내 생산자들의 제품품질을 개선시키고 기술개발을 촉진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소비자보호가 미흡한 상태에서 국내시장이 개방되면 외국의 생산자들도 이를 악용하여 국내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될 것으로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출품이 내수품보다 품질, 가격 등 모든면에서 월등하다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수출에 대한 보조에 기인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소비자보호의 정도가 외국에 비해서 취약한데 연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출에 대한 보조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품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열등한 것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외국의 생산자들은 상대적으로 질이 낮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우리나라에 공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장개방의 가장 중요한 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이익의 증진이 올바르게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보호는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에 비로소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면 소비자보호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하면 소비자보호

의 대상으로서는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위해의 방지,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광고의 기준제정, 거래의 적정화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소비자피해보상 대상품목으로서는 식료품(18개 품목), 농·수·축산품(7개 품목), 공산품(27개 품목), 의약품 및 화학제품(11개 품목), 문화용품·기타(4개 품목), 운수업(9개 업종), 여행업(2개 업종), 공공서비스(2개 업종), 예식업, 세탁업이 포함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들에게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이 정도의 소비자보호로 충분한 것인가. 보완 또는 추가를 필요로 하는 분야는 없는가. 소비자보호는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소비자보호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유해식품, 불량제품, 부실공사, 불공정약관, 과장 또는 허위 광고, 독과점가격, 불공정거래 등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히는 사례는 무수히 많은 실정이다. 개별 소비자는 거래에 있어서 생산자에 비하여 그 힘이 대단히 미약하기 때문에 이같은 불균형을 보완하고 소비자보호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은 대단히 커지고 있다. 현재 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보호원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국내시장의 포괄적인 개방에 대비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장치의 보완 및

강화 그리고 외국, 특히 선진국제도와와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요건은 소비자들의 적극적 태세이다. 왜냐하면 소비자보호와 소비자이익의 증진은 소비자들 자신이 가장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UR 협상의 결과는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이나 우리나라 국내시장은 점진적으로 개방될 전망이다. 이에 대응하여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소비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다. 소비자보호는 시장개방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와 소비선택의 기회확대는 우리나라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및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첩경이라는 점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이 요구된다. 결국 소비자보호라는 사적이익이 보장될 때 현재 국내시장의 개방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과소비도 효과적으로 억제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들 자신의 인식 제고와 적극적 자세가 무엇보다도 우선 요망되며 소비자보호를 효과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 및 개선이 긴요하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과 우리의 대응방안



이재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리나라는 지난 20~30년간 공업 위주 수출주도형의 불균형적인 경제 발전전략을 추진해왔음에 따라 도시 농촌간의 소득 및 생활격차가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농산물 수입개방압력이 고조되어 농촌과 농업은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직업으로서의 농업에 대한 매력은 퇴색된 지 이미 오래이며 젊은층을 위주로 한 40~50만명의 농민이 매년 농촌을 떠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의 주요 원인으로는 미국의 경제 사정악화를 꼽을 수 있다. 미국은 누적되는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들이 아직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농산물의 수입개방을 무역상대국들에게 쌍무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GATT를 중심으로 한 UR농산물협상을 통해서도 간접적인 수입개방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다.

이번의 우루과이라운드는 1980년대 초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보호주의적인 무역문제, 새롭게 대두된 서비스교역 문제, 그리고 세계 농산물시장의 불황 등을 원인으로 해결하고 2000년대의 새로운 무역규범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

시되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를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추진하였으며 미국의 현안이 농산물이기 때문에 15개 협상중에서도 농산물협상이 가장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다.

UR농산물협상의 특징을 과거와는 달리 농산물교역문제의 해결을 넘어서 세계산업을 시장지향적인 자유무역체제의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자는데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생산기반이 재정비되어 있지 못하고 국내의 가격차이가 큰 상태하에 있는 한국농업은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주요 기초 농산물까지도 완전 수입개방된다면 농가소득은 차치하고라도 국민보건유지와 국내 동식물 보호라는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농산물 수입국의 영농형태가 대규모의 상업적인 이윤추구에 목적이 있으므로 다량의 농약살포와 시비가 보편화 되어 있으며 특히 장시간의 운송과정에서의 과다한 방부제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업은 공업과는 달리 석량안보, 환경보전, 국토의 균형발전 등 비경제적이며 비교역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국내농업이 붕괴되면 이러한 기능의 상실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우선 국민식생활의 기초식량이며 농가의 주요소득원인 쌀, 쇠고기, 콩, 우유 및 낙농품, 마늘, 그리고 고추 등은 자유화 대상품목에서 제외가 되도록 협상해야 한다.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유예기간을 확보하고 감축의 속행기간을 연장시켜 농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야 할 것이다.

UR농산물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의제는 국내농업보조금의 감축, 국경조치의 완화, 수출보조금감축, 그리고 농업의 비교역적 고려사항(NTC) 등이다. 우선 추하곡수매제도와 같은 가격지지, 농약·농기계·비료 등 농업 지원제에 관한 보조, 영농자금지원 등 모든 농업보조금을 합의되는 기간내에 일정수준까지 감축해 나가자는 것이다. 또한 관세수준을 인하함은 물론 모든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 대신 국내외 가격차이 만큼을 관세의 형태로 부과하되 이와같은 관세도 일정기간내에 감축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 수입국들은 농업의 비교역적 목적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농업유지가 필요하며 농산물교역의 완전자유화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1987년 1월부터 거의 4년간에 걸쳐 진행되어온 UR농산물협상에서는 각국이 처한 특수한 사정과 입장의 차이로 의견의 합치는 매우 어려운 상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농산물무역을 자유화시키는 방향으로 타결시키자는 원칙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다만 보조금의 감축과 무역자유화에 있어서 구체적인 감축과 이행기간의 협상에 이견을 보일 뿐이다. 따라서 UR협상 이후 우리나라 농산물시장은 대폭적으로 개방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수입개방이 확대될수록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므로 이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국민식생활의 기초식량이며



농가의 주요소득원인 쌀, 쇠고기, 콩, 우유 및 낙농품, 마늘, 그리고 고추 등은 자유화 대상품목에서 예외가 되도록 협상해야 한다.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유예기간을 확보하고 감축의 속행기간을 연장시켜 농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야 할 것이다.

일단 수입개방이 되고서부터는 관세제도를 개선하고 유통체계를 효율화하여 수입개방에 의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동식물 검출기능을 강화시켜야 함도 물론이다.

특히 최근 흉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합리적인 유통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수입업자의 폭리와 무분별한 수입이 행해지고 있음을 볼 때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식생활개선을 위하여 효율적인 유통체계의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포장 및 표시제도의 확립으로 원산지명, 수입업자, 수입가격, 품질 및 등급표시를 의무화하여 수입농산물의 안정성확보와

더불어 경쟁질서의 개선을 통한 품질향상에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수입농산물에 대한 과대광고를 억제시킨다든지 소비자 보호운동 및 관련 단체와의 연대성을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도모한 무분별한 외국농산물 수입을 억제시켜야 한다.

최근들어 교통수단의 발달과 무역의 확대에 따라 국제간의 교역량이 증가되고 있으며 수출입 농산물의 품목도 다양화되어 병해충의 국내침입 가능성이 높아졌고 항생제, 항균제, 농약, 성장호르몬이 잔류한 식품의 수입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UR협상 이후에 대비하여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동식물의 강화가 필요하고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검역제도의 정비, 검역기술의 향상, 검역정보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특히 농산물은 그 식품과는 달리 한번 먹고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이 오랫동안 인체에 미치기 때문에 국민보건적 차원 및 농민보호의 차원에서 인원과 제도의 보완 그리고 시설장비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개방과 소비자



김태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무역을 공정거래질서를 정립시키고 교역량을 확대시킬 목적으로 체결된 다자간 무역협상인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국제경제 및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동안 여러차례 그 내용을 수정해 왔는데 85년 9월부터 시작하여 다음달 12월에 종료예정인 우루과이라운드는 GATT의 8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는 서비스교역과 관련된 사항을 15개의 협상의제중의 하나로 채택하여 상품협상그룹과는 별도의 서비스협상그룹에 의해서 서비스교역의 자유화 확대를 위한 일반협정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우루과이 서비스협상은 개별 서비스분야의 특수성 때문에 서비스 일반에 관한 협정문 작성과 병행하여 금융분야를 위시한 주요 서비스분야에 별도로 적용될 분야별 주석서 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금융서비스협상의 내용 중 소비자 및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사항으로는 시장접근과 내국민우대 조항이 있다. 시장접근은 금융서비스가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여러 방식을 의미한다. 그것의 유형으로는 외국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진출국에 지점, 현지법인, 사무소 및 진출대상국의 기존 금융기관의 인수, 합병 등 진출국에 영입기

반을 두고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상업적 주재와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국경간 서비스교역, 그리고 금융서비스 소비자가 외국에서 직접 외국금융기관의 서비스를 구입하는 방식인 소비자의 국경간 변동 등이 있다.

내국민우대는 외국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국내금융서비스 공급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나 실질적인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우루과이 금융서비스협상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결국 경쟁력이 우월한 선진국 금융기관이 금융시장개방의 확대 및 일단 진입한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영업행위의 보장을 통하여 금융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국가의 금융시장에서 그들의 영업활동을 강화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 금융산업 개방이 보다 구체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국가의 경제전반과 금융서비스 소비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금융산업의 개방의 정도와 과도가 그 국가의 금융산업 발전수준과 얼마만큼 합치하는가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금융산업의 개방을 통하여 금융시장에서의 경쟁의 증대 및 선진금융기법의 이전 등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질적향상 및 금융 산업 전반의 경쟁력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금융상품의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기회의 확대에 의한 소비자 후생의 증대를 예상할 수 있다. 즉 적극적인 금융산업의 개방은 금융시장이 희소한 금융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금융구조의 선진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반면 한 국가의 금융산업 발전 정도에 비하여 과도한 금융시장의 개방은 그 국가의 금융산업 및 제조업 전반에 대한 외국금융기관의 지배력 강화를 초래하고 경제정책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독자적인 정책수행에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것은 결국 그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경제

발전 자체를 저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크게 대두된 금융의 국제화와 개방화의 추세에 대비하여 금융시장개방과 금융 구조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금융서비스의 소비자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자체를 거부하기 보다는 금융산업 및 시장의 개방은 피할 수 없는 국제화 추세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금융시장 개방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 즉 시장개방이 실질적인 소비자 후생의 증대 및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로 연결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 단체가 중심이 되어 각종 금융서비스 및 상품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객관적인 평가 및 홍보활동

을 강화하고 예상되어질 수 있는 금융기관간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보다 전문화, 고급화시키는 노력을 가속화하여 수요에 의해서 금융 서비스 공급의 질이 향상되고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유지, 확대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광고개방과 소비자



민병호 (한국광고업협회 전무)

1.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광고와의 관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상품협상그룹과 서비스협상그룹 등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중인데 광고분야는 서비스협상그룹에 소속되어 있으며 서비스협상 대상은 광고를 포함하여 16개 분야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광고분야가 협상대상이 되게 된 배경은 지난 80년대 중반이후 급격히 시장규모가 신장되어 1989년에는 1조 5천억원, 1990년에는 1조 8천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급격한 시장규모의 성장으로 인해 외국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 수출중대로 인한 시장교류의 역작용과 외국 브랜드 상품의 국내 수입의 폭주에 따른 외국 광고회사의 외국상품을 자극시킨 영향이다.

2. 국내시장의 개방현황

국내 광고시장은 1988년 10월 한미 통상장관회의에서 1991년부터 외국광고회사의 국내 설립을 자유화하기로 협약함으로써 비록 쌍무협정이긴 하지만 개방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다만 이 같은 협정이 한미간의 쌍무협약이기 때문에 이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는 이를 다자간 협정으로 확대하는 결과가 되며, 국내 시장 접근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

하자는 것이 광고분야에 대한 협상의 주요사항이다.

국내 광고회사들은 한미간의 협정에 따라 1989년과 1990년에 걸쳐 3개사는 자본참여에 의한 합작경영을 하고 있으며, 3개사는 독립된 합작법인체를 이미 설립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이같은 대외 정책은 시장잠식을 극소화하고, 외국회사의 진출로 인한 국내 회사의 경영압박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여 진다.

3. 광고분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전망

현재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 협상 품목중에 광고분야는 커다란 쟁점사항없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쟁점화될 수 있는 국내 문제로서는 한국방송광고회사제도, 공익자금의 조성제도, 광고대행사의 인정제도 등 국내의 산업구조나 제도적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되기는 하나 이는 국내의 법적조치로서 십수년간 시행되어 오는 것임으로서 UR협상에서 유보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4.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후의 문제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어 외국 광고회사들이 국내에 진출하게

소비자보호세미나 우루과이라운드와 소비자의 자세

일시: 1990. 11. 20 (화)

주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된다면 우선 국내 광고회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광고시장이 외국회사에게 잠식당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같은 시장 현상이 일어난다면, 국내의 중소광고회사들은 경영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외국 광고회사의 국내 진출은 국내 광고 전문인력의 이동현상이 일어나게 되며 이로 인해 국내 광고회사들은 인력난을 겪게 되어 이점이 국내 광고회사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5. 광고분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소비자와의 관계

광고분야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서 타결된 후 외국 광고회사들이 국내에 진출한다면 이로 인한 국내 소비자와의 관계와 영향은 어떠한 양상으로 변할 것인가.

우선 긍정적 측면에서:

① 선진국의 광고기술에 의한 질 좋은 광고와의 접촉의 기회가 주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현재의 국내 광고가 주입식 반복형인 면에 비해 선진국의 광고 형태는 정보전달위주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② 외국 광고회사와의 경쟁을 하다 보면 국내 광고회사의 광고기법이 현재보다 상당수준 향상될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③ 현재 산업으로서 소외 당하고 있는 국내 광고업에 대한 당국이나 국민으로 하여금 인식의 전환기를 맞게 될 것이 예상된다.

④ 광고시장이 개방되면 광고의 과학화가 이루어져야 되므로 광고료 등의 합리적인 책정경향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는 소비자 물가와도 연관이

있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을 예상해보면:

① 외국 광고회사들은 자기들의 CF (Commercial Film, 상업광고영화)의 국내 방송을 주장할 것이며 이는 우리의 생활이나 문화적인 측면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② 외국인 모델을 이용한 CF의 방영이 가능하게 된다면 우리의 언어생활, 전통문화 등에 영향을 줄 것이다.

③ 외국 광고회사들은 우선 자기들의 광고주 영업대상을 외국 브랜드에 치중하게 될 것이며, 이들의 외국 브랜드 상품의 활발한 광고활동이 외국 제품의 소비를 더 한층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이달의 여성계동향

90년의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11월의 여성계는 바쁘게 움직였다.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가 하면 여성들의 취업문제에도 관심을 높였다. 민자당의 택아입법안 마련을 지켜보며 정중동(靜中動)의 움직임을 보여오던 여성단체들이 민자당의 법안확정을 계기로 다시금 목소리를 드높이기 시작했다.

홍은희 (중앙일보 생활과학부 기자)

UR대응에 발 벗고 나선 여성단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이에 대한 국내 여성단체들의 활동이 다각적으로 펼쳐졌다.

지난 10월 한국여성민우회가 주최한 「UR공청회」를 시작으로 중독돼 간 여성계의 관심은 「UR 바로 알기」에서 협상 반대서명운동·협상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로 확산, 발전돼 갔다.

서울YWCA는 UR협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를 12~13일 명동 Y회관에서 개최, 1천만원의 매상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20일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우루과이라운드와 소비자의 자세」를 주제로 한 소비자보호세미나를 개최하고 ▲농산물 개방 ▲금융개방 ▲광고개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전환을 유도했다.

함께가는 생활소비자협동조합은 지역단위조합원 교육을 통해 UR협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임을 주지시키는 한편 각 개인이 실천해야 할 과제와 UR농축산물협상 반대서명운동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한국부인회는 8개도시에서 건전소비생활을 주제로 전국순회세미나를 열어 UR문제와 대처방안에 대한 계몽작업을 벌였으며, 대한주부클럽연합회·한국여성단체연합회도 회지인 「주부클럽저널」, 「민주여성」을 통해 계몽운동을 전개했다.

택아법안(民自) 놓고 여성계 목소리 높여

이달 한 달도 택아입법을 둘러싼 여론조성이 열기를 띠었다. 민자당안이 확정되자 2일 한국부인회가 한국소비자보호원 강당에서 정계·학계·여성계 등 관련인사들과 함께 택아입법토론회를 개최하고 택아위원회를 가동시킨데 이어 24일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민자당이 21일 국회에 제출한 「영·유아보호 교육법(안)」을 놓고 토론회를 벌였다.

한편 27일에는 보사부 주최로 택아세미나가 KOEX 국제회의실에서 열렸으며 노총·유아교육학회·사립유치원연합회 등도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당초 맞벌이 가정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 택아소가 필요하다는 데

서 출발했던 여론이 택아입법제정으로 여당의 관심을 돌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각기 이해가 얹히게 되자 막바지 여론조성을 제 편에 유리하게끔 하는데만 급급한 인상을 강하게 풍겨 뜻있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서울YWCA 취업세미나 개최

최근 여대생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져 가고 있는 정부투자기관(公社)·공무원·광고 카피라이터의 직업특성과 취업전략을 알아보는 대졸여성성취세미나가 서울YWCA주최로 8일 오후 묘우당에서 열렸다.

공사·행정직 공무원은 신분 보장과 직업의 안정성이 높고 출·퇴근 시간이 일정한 점이, 광고카피라이터는 구매자의 80%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여성 특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업종이라는 점이 각기 장점으로 꼽혔다.

취업여성전담 공동변호인단 발족

여성들의 평생직장확보를 위한 공동변호인단이 한국여성민우회에 의해 6

이달의 여성계동향



여협이 주최한 소비자 보호 세미나



전국주부교실의 환경세미나



대한Y, 결혼예복 발표회

일 발족했다. 공동변호인단은 이태영, 황산성, 강기원, 박주현, 권성희씨 등 여성변호사 15명과 김갑배, 조창영, 홍성우, 이상수씨 등 남성변호사 10명 등 25명으로 구성됐다. 여성변호사 15명은 현재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17명의 여성가운데 두 명을 제외하고 모두 참가한 것이다.

공동변호인단은 일차로 지난 7월 두 산산업으로부터 해고당한 문정숙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인사소송과 지난 9월 대한생명에서 해고당한 김화연씨의 인사소송,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연세대와 민사소송중인 연세대 고용원 남길자·윤복순씨의 사건에 대한 변론을 맡기로 했다.

공동변호인단은 앞으로 취업에 관련된 여성문제를 전담하게 되는데, 여성계에 이같은 공동변호인단이 정식 구성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가정법률상담소, 모집·채용에 관한 성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내 일부기업체에서는 같은 직종에 응시했다 하더라도 남녀에 따라 다른 채용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이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취업여성 6백18명과 기업체 인사관리 담당자 62명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 「모집·채용상의 성차별에 관한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

취업여성들은 고용주의 여직원 선발기준이 ▲용모와 인상 ▲학교성적 ▲출신학교 ▲입사 필기시험성적 순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인사관리 담당자들은 대졸이상 사무직의 경우 남성은 ▲전공 ▲입사 필기시험 ▲학교성적의 순인데 비해 여성은 ▲입사필기시험 ▲전공 ▲용모 및 인상이 동시에 중요하다고 답했다.

가정법률상담소측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해 취업여성의 79.8%, 인사관리담당자의 약 26%가 모르고 있음을 중시, 노동부가 사업주측에 성차별모집광고유형을 예시해 주고 이것이 법에 저촉됨을 알리는 지침서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노래 한마당 열려

한국여성민우회와 노래찾는 사람들이 공동주최한 「여성노래 한마당」이 17~18일 연세대 강당에서 세차례의 공연을 가졌다.

여성 자신의 삶과 생각을 노래로 엮어 건강한 정서를 회복시키는 데 뜻을 둔 이번 공연은 연주곡을 포함, 모두 18곡이 4부로 나뉘어 발표됐다.

제1부 「역사속의 여성」에서는 식민지시대를 버티온 여성들의 강인한 생명력을 주제로 한 노래들이, 제2부 「여성의 현실」에서는 전업주부에서 직장여성으로 이르기까지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갈등이, 제3부 「모성」에서는 탁아법 제정운동의 기록제가 됐던 서울 망원동 해영·용철 남매의 질식사건을 소재로 한 빈민여성문제가, 제4부 「전망」에서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암시하는 노래들이 발표됐다.

영양사첩, 학교급식 개정안 놓고 반발 거세

문교부가 학교급식 확대방안의 하나로 추진중인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재정정감과 편의만을 고려했을 뿐 정작 학생들의 건강은 뒷전이라고 영양사들이 들고 나섰다.

대한영양사회는 최근 서울·경기지역 31개 대학 영양학과 교수 1백48명과 재학생 4천3백여명의 서명이 담긴 건의서를 문교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

했다.

건의서는 개정안중 ▲4백명 이내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여러 학교를 묶어 영양사가 순회하면서 공동관리하게 한 점 ▲급식학생이 50명 미만인 학교에서는 영양사가 아니더라도 「문교부령이 정하는 사람」이 영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은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9조(중소기업용 제외 한 모든 집단급식소에서 1회 급식인원이 50명이상인 경우 반드시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와 상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서는 또 비전문인이 급식을 맡을 경우 부작용 방지가 어렵고 영양교육·식습관 등 생활지도도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여성금융인 임금개선비용 특별예산 4% 반영요구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은 여성 금융인들의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도 국책은행 예산편성시 특별예산 4%를 반영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고졸 은행원의 초임(6급)은 본봉이 11만5천8백원으로 남녀가 같지만 직책수당에서 차이가 나 기준봉급이 달라지고 있으며, 남녀분리호봉제

제로 인해 호봉승급액이 서로 달라 30호봉의 경우 여직원 기준봉급액은 남직원의 69%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노련은 이같은 남녀분리호봉체계를 단일호봉화하는데 8%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일차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4%의 예산을 반영, 직책수당부터 남녀가 같도록 함으로써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남녀고용평등법의 현실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노련은 27일 산하 국책은행·시중은행·노동조합 여성부장 등이 「고령법 실현 특별예산 쟁취」리본을 패용하고 결의대회를 갖기도 했다.

“매월 10일은 페비닐 수거일”로, 주부교실 중앙회 추진

전국주부교실중앙회는 매월 10일을 페비닐 수거일로 정하고 비닐 수거작업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서울시내 백화점들에게 주1회 「비닐포장지 안쓰는 날」운동에 참여할 것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전국주부교실중앙회는 22일 한국외환은행본점 강당에서 「비닐과다사용,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환경세미

나를 열고 이같은 실천운동 전개방안을 마련했다. 주부교실은 백화점의 「비닐포장지 안쓰는 날」을 실시, 6개월 후에는 쇼핑센터·슈퍼·시장 등으로 계속 이를 확대해 가기로 했다.

대한Y연합회·두란노서원, 「검소한 결혼식」 시범보여

결혼이 국적불명의 예식절차와 호화혼수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바람직한 결혼식과 결혼예복 발표회」가 대한YWCA연합회·두란노서원 공동주최로 26일 대한Y강당에서 열렸다.

모의결혼식에서는 ▲신랑·신부가 각기 준비한 혼인서약발표 ▲직장동료들의 축하 ▲신랑·신부가 함께 부모님께 감사의 말을 발표 ▲축하객에게 일일이 정중한 인사를 올리며 식장을 떠나는 「출발」등이 새롭게 제안돼 신랑·신부가 결혼식의 주체임을 강조했다.

결혼예복 발표회에는 20만원 이하로 만든 기성복드레스와 한복 등 14벌이 선을 보였는데, 양장예복은 모두 부분착탈이 가능해 결혼식 후 신혼여행복이나 평상복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성복 드레스는 내년 2월부터 시장에서 판매된다. ◆

다양해진 드라마 소재 매스컴 모니터회

최도영, 박성미, 김혜자, 박정자, 박정현, 박정민, 박정민, 박정민

본회 매스컴 모니터회는 11월8일 모임을 갖고 10월11일부터 11월8일까지 모니터 대상 프로그램이었던 아침드라마 '아침은 마흔아홉' (MBC TV), '가을에 온 손님' (KBS 2TV)과 일일연속극 '서울 뚝배기' (KBS 1TV)에 대한 모니터 결과를 토론했었다. 그 중 '가을에 온 손님'은 큰 무리없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모니터 대상 프로그램은 아니었지만 '아침의 창' (MBC

TV)이 진행상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1. 아직은 마흔아홉

의사로서 사회활동을 하는 정원장(정혜선 분)과 가정주부인 인자(김혜자 분)의 삶을 중심으로 중년의 여성들이 겪는 문제를 현실감있게 그리고 있는 이 드라마는 소재 자체가 중년기에 접어든 여성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사회활동은 성공했지만 가정

생활은 성공하지 못한 정원장의 모습은 전문직업을 가진 여성들에 대한 편견을 또 한번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가정주부로서의 자신의 위치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인자의 모습은 가정주부의 일을 하잘 것 없는 일로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대학시절에 클라스메이트로 만나 결혼한 것으로 나오는 인자의 큰딸 명우(박성미 분)와 인철(박찬환 분)의 관계는 요즈음의 젊은 부부가 갖는 신선향을 찾아볼 수가 없고 인철의 일방적인 카리스마적인 행동이 지나치게 많이 표출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10월17일 방영분 중 명우가 남편 인철에게 "나 대학원에 가면 안돼?"하자 인철이 "애나 잘 키워. 당신보다 잘난 여자들도 애 키워며 다 잘살아. 나 대단한 여자인데 집에서 썩고 있다는 생각부터 고쳐라 이거야. 볼 꺼. 자제."라고 일축하는 내용이 있었다. 아내의 생각에 대해 그렇게까지 매몰찬 말로 답하는 남편의 태도나 그런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 아내의 태도 모두에 문제가 있다. 10월19일 방영분중 명우가 인철에게



"나는 당신 기다리노라고 새벽까지 기다리는데요"라고 하자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애. 사내놀이 할 일없이 밥 해 놓고 여편네 기다려"라고 답하는 내용은 아무리 남성 권위주의에 물들은 사람이라고 해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내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밖에도 인자 동생(양희경 분)의 황금만능주의에 젖은 사고방식이 지나치게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 잠자리에 드는 여자의 화장이 너무 짙은 것과, 가을철인데도 여름 장옷을 입고 있는 것 등이 지적되었다.

2. 서울 뚝배기

설령탕 집에서 일어나는 일상을 서민생활의 애환을 중심으로 엮어나가고 있는 이 드라마는 서민층의 폭넓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기존의 장인정신의 부재 상태에서 설령탕집을 대물림해 경영한다는 것은 매

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며, 그리 크지 않은 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노사간에 합의 과정을 거치는 장면을 보여준 것은 기존의 드라마가 갖는 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새로운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듣기 민망할 정도의 욕설이 너무 자주 나오고, 매일 등장하는 길손카페의 분위기와 마담의 비음 섞인 말씨, 비비트는 자세 등 내용의 전개상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을 필요이상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3. 아침의 창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가벼운 마음으로 주고 받는 형태의 대담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시청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아침의 창'도 비교적 부담없이 편안한 주제를 놓고 참석자와 격의없는 대화를 시도해 자

연스러운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방청석에 참석한 사람들이 의견을 말하는 도중 사회자가 중간에 말을 끊어버리는 일이 빈번하고, 출연자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정정해 무안을 주기도 하는 등 사회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자는 토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중간 역할을 해야할텐데 출연자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 사회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공개적으로 말하기 곤란한 질문을 방청객에게 던져 당황하게 만들고서 "우리끼리든 어때요"라고 하면서 끝까지 대답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TV를 통해 공개되는 내용이므로 방청객에게 무리한 답변요구는 피해주었으면 좋겠다. ♣

1990년도 여성계를 결산한다

송영주 (한국일보 생활과학부 기자)

1990년도 여성계는 길로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다양한 방법으로 여성에 대한 대중적 기반을 쌓으며 내실을 추구한 해였다. 집단으로서의 여성목소리를 표출한 큰 움직임으로는 ▲탁아입법과 세법개정 등 법률제정비노력 ▲남북한여성교류 추진 ▲노래·문학·영상을 통한 여성문화 예술운동 ▲사무직여성에 대한 재평가 작업 등을 꼽을 수 있다.

올해 2월 한국여성단체연합이 「탁아문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모성보호」를 구호사업으로 내걸면서 시작된 탁아관련 입법추진 움직임은 3월 망원동에서 엄마가 일하러 나간 사이 발생한 어린 남매 질식사사건으로 더욱 불붙기 시작했다. 여성단체연합은 3월 해영·영철 두남매를 위한 위령제개최·탁아입법 촉구성명서 발표에 이어 4월 탁아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 평민당측의 법안제출(1989년 11월)에 그동안 탁아독립입법에 소극적이던 민자당측에서도 탁아입법 움직임에 뛰어 들게끔 했다.

그러나 6월 민자당측의 「영·유아탁아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후 유아교육학자, 민간탁아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직장탁

아소를 중심으로 한 YWCA, 한국노총 등 각 집단마다의 주장이 크게 대립, 탁아법논쟁이 뜨겁게 일기도 했다.

민자당의 「영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한 법률안」은 ▲탁아사업의 보사부 일원화 ▲입소대상 저소득층 자녀우선 ▲보육비 보호자부담 원칙 ▲국·공립기관을 비롯, 모든 법인·단체·개인의 보육시설 설치가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아교육학자들은 탁아소의 「교육」기능을, 지탁연은 「복지」기능을 각각 쟁점으로 내세워 세미나개최·건의서발표·서명운동 등 방법으로 큰 반발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민자당은 6월의 탁아법시안을 대폭 수정한 「영유아 보호·교육법」을 10월 국회에 상정했으며 현재 독립입법 마련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학회·지탁연·한국노총·YWCA 등 일부 여성계는 이의 유보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탁아법과 함께 여성계의 관심을 끈 것은 세법개정이다. 89년말 통과된 개정가족법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시작된 세법개정운동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여성민우회

가 각각 주축이 됐다.

가정법률상담소는 7월에 세법에 관한 시민공개강좌를 가진데 이어 8월엔 「세법개정안중 새가족법의 정신을 외면한 불합리한 내용이 있음을 간파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각당 총재와 국회의원 앞으로 진정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런 개정운동은 가족법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단이 주축이 된 것이다.

이어 8월중엔 여성개발원이 「여성과 세법개정」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으며 12월엔 여성민우회가 「세법개정」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가지기도 했다. 여성계의 시각은 ▲배우자의 상속세를 폐지한다 ▲이혼시 분양분 재산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배우자를 위한 사별특별공제제도를 둔다는 입장이다.

시행 2년반을 넘긴 남녀고용평등법이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도 여성계에서 한목소리로 지적됐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모집·채용에 있어서의 남녀불평등 철폐를 위한 토론회」, 아시아·태평양변호사협회의 「여성의 법적지위와 사회진출 심포지움」 한국여성민우회의 「심각한 임금차별 우리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토론회」등 취

업시준인 10·11월중 잇달아 열린 토론회에서는 ▲법적구속력 강화 ▲차별행위 유형에 대한 구체적 규정마련 등이 고평법 보완대책으로 제시되었으며 체계적 법적대응활동을 위해 민우회는 「여성의 평생직장 확보를 위한 공동변호인단」을 11월에 구성했다.

그러나 성차별개선노력이 유명무실하게 머무른 것만은 아니다. 지난해 서대협이 고평법위반업체로 검찰에 고발했던 (주)신도리코가 5월 1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사실상 결혼·임신을 이유로 해고했던 진주문화방송 여사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8월 부당해고판정을 받기도 했다.

취업상의 성차별문제에 대한 관심은 자연 「사무직여성」을 부각시키게 만들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사무직여성노동자운동의 방향성 정립을 위한 계간지 「사무직여성」을 봄부터 내고있으며 한국노총은 사무직여성의 고용형태로 크게 증가하는 시간제 고용을 성차별을 심화시키는 문제점으로 「채용상 남녀차

별 대책 토론회」에서 지적하기도 했다. 계간 「사무직여성」외에도 1990년 여성계는 「여성과 사회」(한국여성연구회), 「여성농민」(전국여성농민위원회)의 창간호를 냈다.

여성계의 또하나 큰 흐름은 「북한 바로알기」작업이 구체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한국부인회가 2월 「남북여성교류세미나」를 연 것을 시작으로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9월 「민족통일성회복을 위한 남북여성교류」를 주제로 전국여성대회를 개최했다. 이외에도 전국주부교실중앙회·한국여성단체연합·대한YWCA연합회·한국여성개발원·정무제2장관실 등에서 세미나·북한여성연구서발간·기금모금 등 활동을 전개했다.

또 여협과 한국부인회는 각각 남북한여성단체 교류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대한Y가 벌이고 있는 「북한Y재건을 위한 기금모금」은 매년 1천만원씩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단체들의 이러한 움직임

은 거의 전시적 효과에 머물고 있는 상태여서 진정한 「남북여성교류」를 위해선 보다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성단체장의 얼굴도 많이 바뀌었다. 전 한국여성유권자연맹회장인 이계순씨가 3월 제3대 정무제2장관으로 취임했으며 전 한국여성민우회회장이자 이대사회학과교수인 이효재교수가 2월 제4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여성민우회장에는 부회장이던 한명숙씨가 올랐다.

내부진통을 겪었던 여성의 전화는 노영희대표가 물러나고 김계정씨가 8월 새대표로 선출됐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7년동안 이 모임의 부회장을 맡아 오던 김순씨를 9월 제4대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국제존타서울클럽은 2월 이윤경회장에서 배영희 회장으로 얼굴이 바뀌었다.

여성 양대 사학인 이화여대와 숙명여대총장도 새얼굴로 바뀌었다.

6월 전격사퇴의자를 표명, 여성계전



중노위로 부터 결혼과 임신으로 인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진주MBC 직원의 사례발표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지난 1월부터 90년 한해동안 벌인 과소비추방캠페인은 그동안 개별단위로 전개해온 운동을 연합한 69개 여성단체가 「과소비추방 범여성운동연합」을 결성하고 지속적인 운동으로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90년 여성계활동으로 끝을 맺는다.



체에 큰 충격을 주었던 정의숙 이화여대총장은 「능력원칙」을 사임의 이유로 밝혔으나 결국 김옥길씨에 이어 이상장직을 승계했다. 정총장의 후임으로 윤후정 법정대교수가 선출됐다. 윤후정씨의 총장선출로 「이화여대출신 독신여성총장」전통이 여전히 이어지게 됐다.

3월 선출된 숙명여대 새총장인 「정규선 교수는 교수직선제에 의한 숙대 첫 민주총장이라는 점에서 화제를 모았다.

새로운 여성단체의 창립도 주목할만하다.

소비자운동이 중요한 주부운동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여성민우회는 1월 「함께가는 생활소비자 협동조합」을 창립 기존의 한살림조합과 같은 농산물 도농직거래·소비자의식변화를 활동목표로 시작했다. 생협은 평범한 주부들이 소비자협동조합운동의 의식주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4월엔 소협운동과 더불어 가족이گی주의에서 벗어난 주부운동·학부모운

동의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간교육실험 학부모연대」가 창립대회를 가졌다. 전종자씨를 상임대표로 이승리 주부아카데미회장·허광섭목사·정성철 변호사·이화수 아주대교수·박혜선 여성신문 편집위원 등이 비상임공동대표로 선임된 학부모연대는 학부들이 교육정책에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여성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9월 학부모연대는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아이들과 교사·부모들을 위한 교육목력상담전화「호루라기」를 개설했고 체벌에 대한 교육상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교사가 교육상 필요해서 하는 징계는 인정하지만 체벌은 반대한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5월엔 여성정치연구소(소장 손봉숙), 8월엔 여성사회교육회(회장 서울교대 김지자 교수)가 각각 창립했다. 여성정치연구소는 잇따른 정치논란과 함께 정부제2장관실의 용역을 받아 북한여성에 대한 종합연구서라 할 수 있는 「북한여성연구」를 발간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여성사회교육회



는 직업기술·여가교양·학력인정교육 등 각종교육을 통한 여성의식화 추진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지난 1월부터 90년 한해동안 벌인 과소비추방캠페인은 그동안 개별단위로 전개해온 운동을 연합한 69개 여성단체가 「과소비추방 범여성운동연합」을 결성하고 지속적인 운동으로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90년 여성계활동으로 끝을 맺는다. 매월 5일을 과소비 추방의 날로 정하

고 매월 「알뜰손수장만」「우리 농산물 먹기」「건강휴가보내기」등 중점과제를 정해 각 단체별로 함께 실현사업을 전개한 과소비추방운동을 미행정부로부터 캠페인중단 요구를 받을만큼 결집된 힘을 과시했다. 이처럼 여성계가 대규모범운동연합을 결성한 것은 범여성가족법개정 추진위원회 이후 처음이다.

90년은 여성계는 여성문화운동 혹은 여성예술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움직임들도 활발히 일어나기 시작했다.

여성의 삶과 현실을 표현한 노래들이 「여성노래」라는 이름으로 선보이기 시작했는가 하면 여성문학·여성영화 등이 여성운동의 한 실천과정으로서 속속 만들어졌다.

90년은 여성계는 여성문화운동 혹은 여성예술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움직임들도 활발히 일어나기 시작했다.

여성노래는 5월 지역탁아소연합회가 마련한 「새날을 열어가자 우리 아이들」, 11월 여성민우회와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공동주최한 「여성노래한마당」등을 계기로 대중들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계몽적이거나 구호적이기보다는 서정적이고 소박한 내용에 여성의 건강한 정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대중적 기반은 보다 폭넓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문학에 대한 논의도 올 초부터 활발하게 전개됐다.

여성문학연구가·여성문인들이 중심이 돼 전개되기 시작한 여성문학논의는 월간문학사상(2월호)의 「여성주의 문학」, 계간 창작과 비평(봄호)의 「여성해방문학론에서 본 80년대의 문학」, 계간 외국문학(봄호)의 「여성의 탐구와 그 소설화-오정희론」, 월간문학정신(3월호)의 「페미니즘」고정남, 민

족문학작가회의의 여성문학인위원회의 「여성운동과 문학」 등 여러 문학지들이 앞다퉈 90년대 새로운 문학장르로 다들으로써 본격화됐다.

「여성문학」 또는 「여성해방문학」에 대한 논의가 종래의 여성문학연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은 여성작가의 집필이나 여성현실을 취급한 것만으로는 여성문학이 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여성문학은 여성운동 또는 여성해방의 시각에서 구체적인 이론정립과 작품비평을 시도한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여성문학의 전개는 우리 문학에 여성문제를 보는 시각을 보다 폭넓게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영상을 통한 「여성현실담기」운동도 활발했다. 4월 여성영상집단「바리터」가 여성민우회와 공동으로 「작은 풀에도 이름 있으니」라는 사무적 여성의 노동조합운동과 직장내 남녀불평등을 담은 여성영화를 제작, 시사회를 가진 것을 비롯, 한국여성개발원의 「사랑이란 이름으로」, 에필름의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등이 90년에 각각 제작돼 공개됐다. 「단지 그대가...」는 여성 성폭행을 방어하려했던 주부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으로 이어진 고소사건을 통해 성폭행에 대한 사회적책임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또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라는 점에서 여성계에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일부 여성들로부터 이 영화는 여성의 현실을 올바르게 그려내는데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이제 막 태동한 여성문화예술운동이 살아남고 대중적이기 위해선 여성문제를 보는 명확한 시각과 전문성

의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90년 문화예술운동은 여성계에 확인시켜 주었다. ◆

한국 여성의 삶과 역사 이야기 여성사 ①

여성신문사 발행

여성으로써 나만의 일을 갖고, 외길을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산 경험과 지식이 될 수 있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미 1960년대 초기의 이야기가 아득한 옛일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듣는 재미까지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야기 여성사 ①」이기도 하다.

박금옥 (중앙일보출판국 편집위원)



“...지금 이렇게 다리도 못쓰고 몇 년째 누워있으니 보통 갑갑한 게 아니야. 지금도 누워서 소설을 구상하지, 나에게 있어서 살아있다는 것은 곧 글을 쓴다는 거니까. 당신이 사온 노란꽃을 보니까 봄인가 보구려. 나 꽃 좋아해...”

올해로 84세, 「地脈」, 「人脈」의 작가로 일반사회로부터는 모습을 감춘지 오래인 원로작가 최정희씨. 몇년째 그의 말대로 다리는 못 써 병석에 침져 해 있는 그의 오늘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가 수록된 책이 최근 출판되었다.

최정희씨 뿐 아니라 한국 전통의상 연구가 석주선 박사, 여성 노동운동의 대모 조화순 목사,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호 송철주의 기능보유자 박아지씨, 생존한 몇 안되는 정신대원중

한 사람인 배봉기씨, 중요 무형문화재 제23호인 가야금병창의 예능보유자 박귀희씨 등 총17명의 여성들의 구비구비한 몇천 살의 이야기를 구성지게 엮은 「이야기 여성사 ①」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여성신문사(週刊)가 최근 창간 2주년을 즈음하여 발간한 것이다. 이 17명의 여성의 이야기는 지난 2년간 여성신문에 연재되었던 17명의 이야기를 뽑아서 묶은 것이다.

남성중심적인 한국사회에서 잠재되어 있는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을 차별하는 사회 제반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한 몫을 하기위해 창간된 것이 여성신문이라는 사장 이계경씨의 말.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소설쓰는 일이건, 여성운동이건, 포교활동이건, 술

담는 일까지도 한 분야에서 30년 이상을 몰두해 온 여성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

30년이상 외길을, 그것도 오늘과 같은 대명천지가 아니라 일제의 억압과 민족전쟁, 정치적인 혼란의 지난 1백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온 여성들의 이야기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을 수 없다.

전통사회의 인습과 제도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아실현을 하려는 여성들에게는 넘기 어려운 철옹성이었고, 굴레였다.

따라서 여성으로써 나만의 일을 갖고, 외길을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산 경험과 지식이 될 수 있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살고 있는 우

리들에게 이미 1960년대 초기의 이야기가 아득한 옛일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듣는 재미까지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야기 여성사 ①」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역사속에서 여성들의 삶은 항상 소외되어 기록으로 남은 경우가 많지 않다. 남아 있는 역사속의 여성은 대부분 고관대각 출세한 사람의 아내나 어머니, 아니면 스캔들(?)의 주인공일 경우였다.

이처럼 여성의 이야기 특히 그의 일(집안 살림살이가 아닌)이 주된 주제가었던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여성신문의 창간 모토 “남성중심인 한국사회에서 잠재되어 있는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의 개선

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과 부합된다고 할 수 있겠다.

우선 이 책에 담긴 17명 여성들의 면면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 박아지(서울시 무형문화재 2호 송철주 기능보유자), 제2장 배봉기(정신대 생존자), 제3장 황금심(원로가수), 제4장 임혜옥(사회복지재단 해심원원장), 제5장 조화순(여성노동운동 대모역 목사),

제6장은 윤묘희(서울 광장시장 여성대표), 제7장 김숙자(도살공회의 총무), 제8장 박귀희(중요 무형문화재 23호 가야금병창 예능보유자), 제9장 하와이 사진신부들, 제10장 최정희(소설가),

제11장은 석주선(민속학자), 제12장 정정화(상해 임시정부 산 증인), 제13장 정애란(연극배우), 제14장 김한림(구속자 가족협의회 초대 총무), 제15장 황혜성(궁중요리 연구가), 제16장 고인준(제주도 잠수부), 제17장 조아라(광주 민주화운동 대모).

이상의 면면들은 한국 사회의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흙을 갈고 씨를 뿌려 열매를 맺게 한 개척자의 역할을 한 용기 있고 추진력 있는 여성들이다. 그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는 또한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꿈결인 듯 몽롱한 의식상태에서 들던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같은 재미마저 느끼게 한다.

배봉기씨는 끼니조차 때우기 힘든 가정에 태어나 7세에 민며느리로 들어갔다. 야노중으로 쫓겨난 후 17세에 재혼, 이어 18세에 가출, 다시 3촌 이렇게 유전하다 결국 여자정신대 모집인의 꿔에 빠져 정신대원이 된다.

해방이 된 후에도 오끼나와의 곳곳의 술집을 전전하며 부평초처럼 어느

곳에도 뿌리내리지 못하고 떠도는 그의 삶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70년대와 80년대에 한국 여성노동운동의 대모로 일컬어지는 조화순 목사의 이야기는 신앙에 근거한 현실개혁의 의지와 용기를 가진 여성의 삶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데 역할을 한다.

유신반대, 노동악법 철폐, 양심수 석방·가족법 개정 등의 운동에 늘 앞장서 온 그는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통해서 단련되고 강해진다고 생각해요. 전 이제 감옥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

또한 이 책은 자신의 일에 관해서 뿐 아니라 작가 최정희씨가 투철한 사회주의자로 자처하던 그의 첫남편 이야기, 두번째 남편이 된 그의 상사였던(잡지 「삼천리」) 파인(巴人)의 이야기식을 진솔한 삶의 궤적과 함께 수록하여 일종의 구술된 17명 여성들의 자서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잔다르크로 일컬어지는상해 임시정부의 살림꾼이었던 산증인 정정화 할머니의 이야기는 중국에서의 독립운동하던 시절의 한국 여성들의 역할 등에 관해서도 새로운 평가를 해야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다.

국판 3백8페이지, 값 4천3백원. ◆

우리들의 광장

- 대한간호협회 ● 전문직업여성클럽한국연맹 ● 대한전물군경미망인회
-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 대한조산협회 ● 국제승공연합전국여성회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 대한영양사회 (원고도착순)

대한간호협회

병원표준화 간호부문 심사기준설정 워크샵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1월23일 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병원표준화 간호부문 심사기준설정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샵은 병원표준화사업 중 간호부문 심사요강을 우리나라의 실정

에 맞게 조정하고 이에 따른 심사지침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병원표준화 간호부문 심사위원, 병원간호업무 표준설정위원 및 협회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 최국미(한강성심병원 간호부장) 씨는 「병원표준화 간호부문 심사요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기존의 심사요강이 미국의 것을 그대로 번역, 사용하여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이것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룹토의에서는 ▲ 철학과 목적

▲ 정책과 예산 ▲ 간호인력관리, 환자 간호관리 ▲ 간호의 질 보장, 타 부서와의 관계·설비·기구·공급품·간호연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이번 워크샵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개정안을 마련, 내년에 심사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문직업여성클럽한국연맹

제4차 세미나 개최

전문직업여성클럽한국연맹은 지난 11월27일 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여성기업창출과 기업운리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후원으로 개최하였다. 회원 및 일반인 35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와 여성의 기업창출」(곽수일 서울대 교수)을 비롯한 3명의 발제강연과 토론시간을 가졌다.



병원표준화 간호부문 심사기준설정 워크샵 - 전문직업여성클럽한국연맹

우리들의 광장



대한전물군경미망인회

호화·사치 추방운동 전개

대한전물군경미망인회는 지난 11월 6일 새철서 새생활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미망인회 특성에 맞는 호화·사치·낭비·무기행위 추방에 역점을 두어 전단배포, 현수막 설치, 휴지줍기, 오물수거 등 캠페인을 벌였다.

또 11월26일에도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호화·사치·낭비추방 촉진대회를 갖고 사회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동을 전개시키기로 결의했다.

교통질서준수 스티카 부착

대한전물군경미망인회는 지난 11월 23일 봉사단을 조직, 강남고속버스

터미널과 서울역 광장에서 교통질서준수를 위해 승용차에 스티카를 부착하고 이어 11월26일에도 한강고속부지에서 스티카 부착운동을 전개하였다.



교통질서준수 스티카부착봉사단 - 대한전물군경미망인회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쌀소비 확대를 위한 별미음식숯씨대회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는 쌀소비 확대를 위한 별미음식숯씨대회를 지난 11월27일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였다.

식생활개발연구회가 주관하고 식생활개선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이 대회에는 60명이 참가하였는데 참가요리는 쌀 및 쌀가루를 이용한 주식, 부식, 간식 및 떡종류, 향토요리, 개발요리, 단체급식요리 등으로 창작성, 보급성, 맛, 조리과정, 영양의 균형, 모양과 색상 등에 따라 심사되었다.

농림수산부와 한국방송공사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대회는 대중적이며 새롭고 다양한 쌀요리 및 별미식을 발굴, 개발하여 쌀밥의 영양과 미식문화의 우수성을 재인식시킴으로써 쌀의

우리들의 광장



소비와 식생활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처음 개최되었다.

식생활개발연구회는 이번 대회의 우수 작품들을 중심으로 각 가정과 지역사회에 홍보, 보급활동을 적극 펼 계획에 있다.

대한조산협회

'90년도 하반기 임원연수회 개최

대한조산협회는 조직강화와 실무자 교육을 위한 '90년도 하반기 임원연수회를 지난 11월26일 협회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협회 이사와 각 지부장 및 실무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연수회에서 김복순 회장은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로 인하여 개업 조산사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 조산사의 권익옹호 및 확보라는 당면과제를 위하여 어느

때보다 조직강화와 회원의 단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본 교육에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책 방향' (박기준 보건사회부 의료제도과장), '국제 조산 사업의 전망' (최연순 연세대 간호대학장), '새질서 새생활 교육' (김명재 자율지도위원장), '제22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보고' (이육기 제1부회장), '실무

자 교육' (김수옥 사무국장) 등의 발표가 있었고, 이어 각지부 상정안전과 토의가 진행되었다.

서울지부 제2차 보수교육 실시

대한조산협회 서울지부(지부장: 김명재)에서는 지난 11월6일 대한간호협회 강당에서 8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90년도 제2차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내용은 '지역사회보건과 조산사의 역할' (차례욱: 한양대 교수), '옛날과 오늘의 태교' (백명자: 한양대 교수) 등이었고 이어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다.



국제승공연합전국여성회

함경남도 여성회 창립 2주년 기념회

국제승공연합전국여성회는 지난 11월 10일 코오롱빌딩 가빈홀에서 이북 5도의 함경남도 여성회 창립 2주년 기념총회를 열었다.

54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조민자회장은 이북 5도 여성회원들이 남북통일을 앞당기는 데 선봉자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과소비·폐기추방 결의대회

지난 11월21일 국제승공연합전국여성회 임원과 서울시·구 회장등 방미연수를 다녀온 회원 55명은 연석회의를 열고 새생활·새질서운동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용산구 지부부터 시작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서 용산구지부



는 지난 12월4일 용산구민회관에서 용산구회원 2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과소비·폐기추방'을 주제로 결의대회와 캠페인을 벌였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회장의 강의를 들은 후 결의문을 채택하고 용산역 광장, 용산우체국앞, 남영역 성

남극장앞에서 팸플릿을 배포하였다.

국제승공연합전국여성회는 이 운동이 범국민운동이 되기를 바라면서 12월20일까지 종로구지부, 중랑구지부, 중구지부에서 각각 1회씩 실시할 예정이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과소비, 폐기향락 추방 캠페인

대한주부클럽연합회는 지난 12월 6일 오전11시부터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나백화점과 남대문일대에서 '과소비, 폐기·향락 추방'을 위한 새질서 새생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청소년 유해환경을 추방하고 올바른 선도, 보호하자는 각종 피켓을 들고 길가던 시민들에게 전단을 나누어 주었다.



우리들의 광장

쓰레기 분리수거 일년 결산 위한 시범지역 간담회 및 시범지역 견학

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 오후 2시30분부터 '90년도 쓰레기 분리수거운동에 대한 일년 결산을 위해 협회 강의실에서 김찬주회장 및 시범지역 대표와 환경처, 서울시, 청소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후에는 문정동 올림픽해밀리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지역을 견학하였다.

간담회에서 각 시범단지대표들은 그동안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 오면서 겪었던 애로사항과 문제점 등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확산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또 시범단지 견학에서는 아파트내 기존의 쓰레기투입구를 봉쇄하고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어 넓은 분리수거 창고로 이용하는 현장을 둘러보았다.

전국주부대회 '망국혼수 시어머니 힘으로 막아보자'

대한주부클럽연합회는 요즘 사회에서 고질화 되어가고 있는 망국혼수 풍토에 대한 규탄과 함께, 과소비 허례의식의 낭비를 막아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전국주부대회를 지난 12월 6일 오후 2시부터 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망국혼수 시어머니 힘으로 막아보자'라는 주제로 회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광규 교수(서울대 인류학과)의 「결혼의 참 뜻」에 대한 강의와 박애경 상담위원(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사례발표, 합탈기 시연회, 질의문 채택 등의 순서가 있었다.

개회식에 이어 감사보고와 '90년도 사업 및 결산승인, '9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 본회운영 합리화 및 조직강화, 회원교육, 권익신장, 대지역사회 홍보 및 봉사, 국제교류 출판사업, 회관건립사업 등 '91년도 사업계획 및 이에 대한 예산 3억 4천만원을 확정했다.

대한영양사회

제22회 정기총회 개최

대한영양사회에서는 제22회 정기총회를 지난 11월 24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개최하였다.

총 대의원 166명중 9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조정준회장의 총회사에 이어 조병준 보사부 보건국장, 최범석 한국영양학회장의 축사가 있었

고, 본회사업에 많은 도움을 준 인사와 지부·분과위원회 운영에 공이 컸던 회원들에게 감사패·공로패·우수회원상이 수여되었다.

개회식에 이어 감사보고와 '90년도 사업 및 결산승인, '9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 본회운영 합리화 및 조직강화, 회원교육, 권익신장, 대지역사회 홍보 및 봉사, 국제교류 출판사업, 회관건립사업 등 '91년도 사업계획 및 이에 대한 예산 3억 4천만원을 확정했다.



제22회 정기총회-임인사

협의회 소식

'대중매체에 대한 국민평가운동 방향' 세미나 실시

본회는 지난 11월 15일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대중매체에 대한 국민평가운동 방향'을 주제로 매스컴모니터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본회는 지난 6년동안 매스컴 모니터링 사업을 전개해 왔는데 그간의 대중매체 모니터링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활발한 운동전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유재천교수(서강대 신문방송학과)의 주제강연 「대중매체에 대한 국민평가운동 방향」에 이어 송유재교수(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의 사회로 각 분야별로 발표가 있었다.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 ▲ 매스컴 모니터 단체 입장
- 김금태(본회 사무총장)
- ▲ 제작자 입장
- 최상식(KBS TV 예능1국부주관)
- ▲ 방송 심의위원 입장-이윤하(방송위원회 방송심의 위원)

▲ 학계입장-김기태(서강대 강사)

'우루과이라운드와 소비자의 자세' 세미나 개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을 앞두고 UR이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과 소비자들의 대응자세를 모색하고자 본회는 지난 11월 20일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우루과이라운드와 소비자의 자세'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장의태 교수(경희대 경제학과)가 주제발표를 하고 3개 분야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참석자들의 잇달은 질문으로 소비자들이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농산물개방과 소비자
- 이재욱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금융개방과 소비자
- 김태준 박사(대외정책연구원)
- ▲ 광고개방과 소비자
- 민병호 전무(한국광고업협회)



본회 회장단 지자제관련 민자당 방문

본회 김경오 회장을 비롯한 여성단체 회장 10명은 지난 12월 1일 김영삼 민자당 최고대표위원을 민자당사로 방문하여 여성이 지방의회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에 유리한 제도의 채택과 당선가능지역의 여성후보자 추천, 당규에서 전체후보자의 20%를 여성으로 공천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내용적으로 여성에게 많은 지원할 것을 건의하였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모색한다' 세미나 개최

본회는 지난 12월 6일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후원으로 서울YWCA 중흥당에서 '국내 입양 활성화를 모색한다'라는 제목으로 국내입양 권장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룬 현시점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외국에서 외국인의 손에 자라는 것을 다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해 국내입양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에 국내입양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 모색을 위한 세미나였다.

장인협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의 기초강연에 이어 입양과 관련한 학계, 정부, 입양기관, 유니세프, 방송계 등 여러분야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간 이날 세미나는 80여명의 참석자들이 관심있게 끝까지 경청하고 질의하는 가운데 끝마쳤다.

공인회계사

이인호 (신동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회계사는 폭 넓게 일을 취급하다 보니 시야가 넓어지고 따라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모든 요인을 고려하게 되어 종합적으로 처리하게 되며 실무를 실제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깊이 있게 알 수 있어 혹시 일반회사로 전직하게 되는 경우에도 상당히 유리하다고 하겠다.

어느덧 공인회계사의 생활을 시작한 지도 4년이 넘었다. 이제는 이 직업이 내 평생의 천직이라는 생각이 들고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마음가짐도 갖지만 가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내 직업을 소개하면 공인회계사가 어떤 직업 인지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소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안타까웠던 적도 많았다.

공인회계사의 시작은 자본주의경제가 발달하면서 회사의 소유주와 경영주가 분리된 전문경영인제도의 도입이 활성화되고 이때 소유주는 경영주에게 맡기었던 자신의 소유 회사의 일정기간의 경영성과 내지 재산상태가 어떤지 파악하여 자신에게 돌아올 배당의 적정성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 이러한 적정성에 독립된 제3의 감사가 필요하게 되었고, 경영주는 그 동안의 경영성과 등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함으로써 자신의 경영능력을 인정받게 할 수 있는 독립된 제3자가 필요하게됨에 따라 생겨나게 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에 의해 일정 자산규



모 이상인 회사는 반드시 공인회계사에 의해 재무제표를 감사받고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당해 회사의 연도 말 재정상태와 경영성과를 감사보고서라는 책으로 의견을 표명하게 되며 당해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은 감사보고서상의 감사의견 및 감사보고서상의 내용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의 의사결정에 이용을 하게 된다. 즉, 주주는 주식투자의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상태를 참조로 동 회사의 발전가능성 및 수익성 상태를 판단하게 되고, 은행 등 금융기관은 대출업무 취급 및 지급보증시에 동 회사의 감사보고서상의 경영분석을 토대로 자산의 건전성을 판단하게 되고, 정부기관에서는 집중투자육성산업의 선별이라든가 정부기관산업의 입찰시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기초로 재정상태를 판단하게 되고, 또한 다른 회사와의 합병 및 취득시에도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로써 각 회사의 지분을 산정에도움을 주며 날로 다국적 기업화되어 가는 국내회사의 경영성과라든지 재산

상태를 외국의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함으로써 그들과의 비교우위를 가능하게 하는 등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감사의 역할은 경제사회가 발달하면 할수록 그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보고서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공인회계사가 되는데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 2차 필기시험과 2년간의 수습과정을 거친 후에 3차 면접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시험은 매년 1차 객관식 시험과 2차 주관식 시험을 실시하는데, 1차 합격 후 2차 불합격시에는 다음 해에 한번 더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2차 시험을 치른 후에는 회계법인 등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2년간의 수습과정을 거친 후 3차 면접시험을 치르는 절차로 되어 있다. 이때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 자격증과 함께 세무사 자격증도 취득하게 되므로 세무사일도 함께 할 수 있다. 시험과목은 공인회계사의 기본 업무인 감사수행에 필요한 과목인 회계학, 원가계산, 재무관리, 세법, 감사와 기초과목인 영어, 경제학, 경영학, 상법 등을 1, 2차에 걸쳐 시험을 치르게 된다. 시험과목이 보통 경영학이나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이 시험에 응시를 하고 있으나 전공에 제한이 있는 시험은 아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회계사들 중에서도 영문학이나 생물학 또는 서양사학등을 전공한 사람도 있으니 뜻만 있다면 누구나 이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까다로운 판문을 통과한 회



계사들의 업무는 주식회사의 감사업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인회계사라는 직업은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생겨난 직업이기 때문에 현대 경제사회에서 활약하는 분야는 상당히 다양하다. 우선 기본적인 회계감사 업무를 비롯하여 세무조정업무(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조세감면규제법 등 기타 모든 세법 외에 세무조정 및 자문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제반법률도 취급함), 회사 등에 대한 경영자문업무, 합작회사 설립에 따른 주식 평가업무 및 국제간에 발생하는 조세업무 등에도 여러가지 일을 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독특한 특기가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에 있어서 회계사란 다양한 업무분야에 자신의 적성에 따라 업무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한 회사에서 한정된 분야의 일만 하게됨에 따라 한 분야의 일을 깊이 알 수 있게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야가 좁아진다는 단점이 있으나, 회계사는 상기와 같이 폭 넓게 일을 취급하다 보니 시야가 넓어지고 따라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모든 요인을 고려하게 되어 종합적으로 처리하게 되며 실무를 실제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깊이 있게 알 수 있어 혹시 일반회사로 전직하게 되는 경우에도 상당히 유리하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회계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였다. 본인의 경우에는 상고졸업 후 한국은행에 근무를 하면서 평균관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조직구조의 불평등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여성도 세상의 절반을 이끌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각 등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직업을 찾던 중 주위에 회계사 공부를 하던 학우를 보고 바로 이 직업이라는 생각을 갖고 시험준비에 뛰어들었다. 공부를 시작할 무렵 주변사람들은 힘들게 공부하지 말고 학교 졸업 후 직장에 다니다가 결혼하여 편안하게 생활하라는 등의 충고를 하였으나, 본인의 생각으로는 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가능성이 있는 이 시기에 벌써 편안함을 추구한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으며 시험에 떨어져도 밀릴 것이 없다는 배

평이 있었기에 망설임이 없이 쉽게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다. 다행히 운이 좋아 공부를 시작한 지 약 1년만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시험준비기간이 2년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시험에 합격 후 이 분야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꼭 회계사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회사 특히, 소규모 외국인 회사의 경우에는 우수한 능력을 갖춘 여성을 많이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들은 회계학 같은 분야가 너무 숫자만 다룬다는 선입견 때문에 기피하여 오히려 여자들의 적성에 잘 맞는 이 직업이 남성들에게 전가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었다. 고학력 여성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타자 동도 배우라고 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회계학 및 세법 입문 정도를 재학시 배워 둔다면 취직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회계사 수는 약 2,500명 정도인데 그 중 여성회계사 수가 약 20명 정도이니 아직까지는 많은 여성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편 우리 여성회계사들은 자신 스스로가 여성 회계사의 선발대원임을 인식하여 남성 못지않게 일을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남녀 차별이 없는 직업이라 좋기는 하나 가끔 급한 일을 할 때 밤을 새워야 한다면 또는 집중적으로 몇일 동안 밤늦게까지 일을 할 때면 체력의 열세를 느끼곤 하지만 그런 때는 여성의 장점인 끈기와 성실로써 이겨내고 있다. 가끔은 내 스스로도 자라는 환경 탓에 '나는 여자니까 저런 어려운 일은 못하지' 하는 연약한 생각에 빠질 때도 있기에 우선 이러한 사고방식부터 고쳐

나가는 것만이 내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 어느 때는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혜택(?)이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남성회계사와 똑같이 못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내 스스로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남녀평등이 아닌 남녀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니 오히려 여성이기 때문에 남회계사들이 처리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열등감에서 많이 벗어났으며 자신의 능력만 있다면 이러한 걱정은 공연한 기우임을 깨닫게 되었다.

외국의 경우에는 전체 회계사 중 절반이 여성이고 이들은 상당히 중요한 직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도 그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사실 회계사 일은 대부분 숫자를 다루는 꼼꼼하고 세심한 판단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들 성격에 맞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려운 점이라면 아직까지는 회계사가 상대하는 대부분의 회사 관리직이 남자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보니 업무외의 인간적 교류에서 아무래도 불리한 점이 있기는 하나 성실하고 따뜻한 행동으로 업무를 진행시키다 보면 똑같은 사람이기에 마음이 통하고 따라서 업무도 잘 풀리니까 이런 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직장생활도 내 가정 생활만큼이나 중요하고 직장생활에 많은 긍지와 보람을 갖기를 원하는 여성이라면 공인회계사라는 직업을 권하고 싶다. 가끔 거래처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 그 곳 여직원들의 일에 대한 태도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들

의 상당부분이 자신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일이 어떤 역할로 다른 역할에 배치되는지에 대한 호기심 없이 또한 일에 대한 자부심도 없이 그저 주는 것이니까 큰 문제 없이 대충 끝내는 식으로 일에 임하고 있음을 볼 때마다 과연 이러한 태도로 남녀평등을 주장할 수 있을까 하는 부끄러움도 느낀다. 먼저 깨어나서 남성과 동등한 직업의식을 갖지 않는 한 남녀고용평등법이 그 실효를 발휘한다고 하여도 여성 스스로가 그 기회를 반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많아짐에 따라 직장생활이 단순히 사회를 경험하기 위한 실습장이 아닌, 자신의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의 변화, 그리고 사회의식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 지고 있음을 보는데 앞으로 여성의 사회역할 비중이 높아지고 이와 더불어 여성회계사의 수도 증대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무슨 직업을 택할까의 고민에 있는 여성들에게 공인회계사라는 직업에 도전장을 내밀 것을 권하고 싶다. ♣

지방여성단체소식 경상북도지역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김도연 회장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친목을 도모하며 회원단체 사업의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0년 2월 20일 14개 여성단체가 연합회를 구성하여 초대회장에 김향란(경북회장)이 취임하여 단합된 힘으로 조직력을 강화, 회원단체가 20개로 늘어남에 따라 1989년 10월에 사회단체로 등록하였다.

1990년 2월 13일 제2대 회장에 김도연(한국유권자연맹 대구경북지부장)이 선임되어 여성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법인이거나 사회단체만의 가입이 가능했던 회칙을 각 시·군 여성단체협의회들이 원할 경우 도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34개 시·군 협의회가 도협의회에 가입함으로써 총 회원단체는 54개가 되어 도내 일선 읍, 면, 이, 동까지 한 목소리로 일관성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제가 이루어졌다.

경북 여협이 벌이는 중점사업으로는 우선 여성신년교례회를 매년 1월 5일에 개최하여 도내 각종 여성단체장을 비롯한 향토여성계, 교육계, 정계, 언론계, 여성상공인, 행정, 문화, 예술계 등 여성지도자 4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희망찬 새해인사와 지역발전을 위한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다.

5월 중에는 건전가정육성을 위한 교육과 소년소녀가장세대와 사회복지시설을 위문, 9월에는 사치, 과소비예

를 위한 교육과 겸소한 추석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하며 연말에는 조용한 연말 보내기, 청소년 선도를 위한 캠페인을 연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회원간의 친목과 화합을 위한 수출 산업체의 견학과 전방 부대견학은 국가의 발전상과 안보의 산교육으로 삼고 있다.

지난 5월부터는 경북여협의 '우리 것을 입고, 우리 것을 쓰고, 우리 것을 먹자'라는 운동의 일환으로 국산 수출 상품 비교 전시회를 열어 각 시·군을 중심으로 외제상품과 국산 우수 상품을 비교 전시함으로써 외제 선호사상이 짙은 우리 사고방식의 재고와 우수 국산품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제품의 우

수성은 물론 국산품의 애용에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밖에도 지난 6월 20일에 경북도교육위원회에서 도내 4백여명의 여성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여성정치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머지않아 실현될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여성정치 참여의식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 10월 17일에는 긴급 여성지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단위 여성단체장을 비롯하여 행정계, 시·군의 여성단체협의회장, 각 기관의 여성대표 등 200여명이 초청강당에 모여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결의했다.

사치 과소비가 여성의 책임은 아니지만 여성은 가계 담당자요, 소비생활의 주체이므로 과소비 퇴폐향락 억제에 여성이 주도하여 도덕성의 회복과 근검절약을 생활화하는 건전한 생활풍토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과 각 시·군 단위로 교육을 실시하여 새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실천대회를 갖기도 했다.

11월 20일 현재로 34개 시·군 단위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여성결의 대회를 일제히 마쳤으며 화목한 가정, 건전한 소비생활, 전환기의 여성의 역할 등 시·군단위 기관단체별로 새질서 새생활 교육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폐품 수집, 쓰레기 분리수거, 알뜰시장운영은 각 지역사회에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건전사회 건립운동 추진

경북도 여성단체협의회는 고질적인 과소비를 추방하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을 추진해, 총체적 경제난국을 극복해 나가기로 했다.

경북도 새마을부녀회를 비롯한 도내 20개 여성단체장들은 지난 5월21일 모임을 갖고 최근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과소비, 퇴폐향락 사치풍조의 추방없는 사회경제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근검절약, 저축운동, 청소년교육 및 건전가정 육성, 호화·사치품 자체운동 등 5개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 구체적인 실무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대구일보 5월23일자)

「지방자치와 여성의 정치참여」세미나

경북도내 여성지도자 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6월20일 도교위강당에서 열린 경북여성단체협의회 주최 「지방자치와 여성의 정치참여」란 주제의 세미나는 지방자치와 여성 정치참여의 당위성과 현실적 장애, 적극적 타개책 등을 다각도로 진단·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주제발표자 윤용희 교수(경북대 정치외교학)는 오늘날은 19세기처럼 「남성민주주의」시대는 결코 아니라고 전제, 일반적 지방자치가 중앙집권에서의 지방분권, 자치화를 말한다면 여성의 지방자치참여는 과거 남성독점의 정치권력을 여성에게 분권화·자치화하는 것이라고 의미부여를 했다.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 제약요인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남성후보선호·고정관념에 의한 성차별 ▲가부장적 인습에 의한 여성의 탈정치화 강요 분위기 ▲소선거구제하에서 여성후보들의 공천난관 ▲여성자신의 정치에 관한 무관심과 여성의 정치능력에 대한 불신 ▲여성단체의 지원미흡 등을 지적하고 ▲고등교육·고용기회·재력기반의 확대 ▲정치사회화훈련을 위

한 적극적 노력 ▲여성역할의 고정관념을 탈피, 새로운 여성상 확립 등 여성 스스로의 해결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으로는 ▲여성문제를 심의결정하는 독립된 여성의회 구성 ▲지방의회의석 일정량을 여성에게 보장하는 쿼터제 ▲여성후보의 가산점제도 ▲정당당규에 여성후보할당제 명시 ▲여성정치협의회의 구성 등의 안을 제시했다.

(매일신문 6월23일자)

한국여성유권자 연맹 대구·경북지구 시민의 정치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대구지부(지부장 김도연)가 4월20일부터 6월10일까지 대구지역의 남녀 1천명(대학생 각 2백명, 일반남녀 각 3백명)을 대상으로 면담 설문조사한 「시민의 정치

의식 및 여성정치참여에 대해 인식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에 대해 대부분 대구사람들은 압도적 지지를 보내면서도 막상 여·남후보중에서는 남성후보 선호도가 월등 높아 이중적 사고구조를 드러내고 있다. 또 지방의회 구성의 여성참여비율은 20%를 적정선으로 보고 있으며 경선이 아닌 의석할당제가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는 추세이다.

(매일신문 6월27일자)

회칙 개정·가입요건 완화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도연)는 지난 9월13일 도청내 경제통계사무소를 회의실에서 9월 임시총회 및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사단법인체만이 가입 가능한 회칙을 개정, 경상북도 시·군의 각 여성단체들이 원할 경우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텄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김소현 추석보내기, 추석절 이웃과 함께 보내기 운동, 여성문화활동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을 전달했다.

(경북일보 9월16일자)

「범죄·무질서 추방을 위한 여성지도자 간담회」 개최

우리사회에 팽배한 범죄와 무질서의



혼란상을 여성들로부터 앞당겨 없애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는 10월17일 오전 11시 도청강당에서 「범죄·무질서 추방을 위한 여성지도자 간담회」를 개최, 그릇된 사회풍조를 쇄신시키기 위한 여성의 자각과 실천의지를 다짐했다.

협의회회원 및 도내 시·군 여성단체장·관련공무원 등 95명이 참가한 이날 간담회에서 김도연 회장은 「사회구조적·제도적 발전에 균형을 이루는 여성의식의 개선과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우리사회의 건전생활 풍토조성에 여성지도자들로부터 모범이 돼야 한다」고 책임감을 역설했다.

이어 김우현 경북도지사도 격려사를 통해 「만연된 불법과 무질서, 과소비의 퇴치에 여성들의 적극적 협조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치·과소비

풍조 배격을 위해 여성단체장들부터 검소한 옷입기 ▲우리 것·우리 농산물 애용 ▲에너지절약실천 등 실천가능한 것부터 모범을 보일 것을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이어 건전사회조성을 위한 결의문도 채택했다.

(매일신문 10월20일자)

지방자치와 여성의 정치참여



통일여성안보회

민족사적 정통성에 입각한 평화통일 성업달성에 헌신하고 전국민적 통일외지 구현과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통일여성안보회는 1980년 4월 설립되어 현재 11,450명의 회원이 활동중에 있다.

통일여성안보회는 1980년 4월 민족사적 정통성에 입각한 평화통일 성업달성에 헌신하고 한민족의 영원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신무장을 공고히 하며 전국민적 통일외지 구현과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80년 4월30일 국토통일원에 사회단체로 등록한 통일여성안보회는 서울시 22개 지부, 지방 5개 지부, 해외 3개 지부 등 총 30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고, 11,45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통일여성안보회가 벌이고 있는 주요 사업은

1. 평화통일을 위한 여성위원의 확보와 교육
2. 평화통일정책의 국내외 홍보활동
3. 사회정의 구현과 생활주변 평화
4. 평화통일 간행물 발간
5. 통일 및 국가안보에 관한 교육과 기타 필요사업 등이다.



정경옥 회장

설립 목적에 따라 그 동안 벌인 활동으로는 우리의 평화통일 재의를 북한당국이 받아들이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한국여성 평화통일 촉진결의 실천대회를 세종문화회관에서 4천2백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벌여 한국여성의 평화통일 의지를 범국민적으로 심화시켰고 그 밖에 사회안정과 계몽을 위한 교육실시, 회원의 통일안보교육, 한국여성 평화통일관 정립을 위한 심포지움, 헌혈 캠페인, 통일연수원 교육(전문요원과정), 민족화합 민주통일 독후감대회, 이산가족찾기 현장 글짓기대회, 남북조절위원회 학술세미나, 중공지부장 선정 임명, 통일여성 생활강좌 개최, 민족화합 민주통일 촉진대회, 평화통일여성 전진대회, 해외지부조직 안보세미나, 안보 보고대회 및 통일대강연회를 가졌다.

또 통일원 유관단체 공동 통일관련 토론회 개최, 폭력배격 전단배포, 시국각성촉구 전단배포, 학원폭력배격 전

통일염원전국여성옹변대회



한민족 여성과 민족통일 세미나



단배포, 한민족 여성과 민족통일세미나 개최, 전전노래부르기, 인신매매단배격 전단배포, 전경대 위문·격려, 공산권 연수교육 귀국보고회, 불우이웃돕기 예쁜 그림 및 소품바자회와 매년 통일염원 전국여성옹변대회를 개최하여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분단된 조국의 통일이 모두에게 맡겨진 엄숙한 역사의 소명이며 과제임을 항상 인식

하여 통일여성안보회의 회원들은
“통일은 여성의 힘으로,
통일은 아내의 힘으로,
통일은 어머니의 힘으로”

라는 지표아래 분단의 고통과 비극이 큰만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더 큰 지혜와 인내 그리고 피땀을 쏟는 정성으로 통일의 의지를 굳혀나가면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 부 부 부 서 서 회 감 조 재 출 국		기 기 계	이 이 이	위 원 위 원 위 원	장 장 사 사 사 장 장 장 장 장	김 오 김 박 강 정 조 정 강 정 김 박 김	경 육 정 경 육 인 숙 동 영 기 연 숙 천 용 인 금	오 환 순 희 기 자 자 민 숙 원 심 자 주 언 숙 래	강남구 방배동 삼익아파트 2-307 인천시 북구 산곡동 307-71 강동구 명일동 현대아파트 101동 405호 구로구 신도림동 미성아파트 5-106 중구 소공동 1 롯데호텔 3층 반도미용실 과천시 중앙동 주공아파트 10단지 1012-401호 동작구 대방동 58-490 양천구 신정1동 옥동아파트 1023동 904호 강남구 청담동 삼익아파트 14-1001 종로구 신교동 2-30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성아파트 8동 909호 동작구 대방동 58-490 서초구 서초동 1494-16 롯데빌리지 나들목 102호 종로구 혜화동 15-8 성북구 보문동 2가 56-12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아파트 507동 1109호	584-1426 032-93-3493 488-1881 671-0326 352-9093 503-4691 815-2244 643-7966 542-1430 736-8229 783-2924 815-2244 586-3541 762-1090 928-4534 471-7865
--	--	---------------------	---------------------	--	--	---	--	--	--	---

회원 단체

(회원단체가입순)

회 원 단 체 명	회	장	주 소	전 화
대한간호협회	박정호	중구 쌍림동 88-7	279-3618	
대한기독교여자전례회연합회	여귀옥	용산구 동자동 35-26	754-1707	
대한여학사협회	박용언	도봉구 쌍문동 423-44	993-2378	
대한조선협회	김복순	중구 장충동 1가 35-5	279-1972	
여성문제연구회	박정자	중구 옥정동 18 대학문화원 304호	273-7645	
중앙부인회	이순옥	성북구 보문동 2가 7	928-2107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김주천	중구 남창동 1-2 새로나백화점 6층	752-4227	
가톨릭여성연합회	오덕주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층	778-7543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백정란	용산구 청파동 2가 53번지 화빌딩 303호	718-0915	
법태평양동남아시아여성협회	문주단	강남구 삼성동 113-1 코스모스텔 305호	557-8773	
한국부녀복지연합회	안숙자	마포구 공덕동 427	712-0713	
한국여성항공협회	정오순	중구 봉래동 1가 132-5	755-5341	
대한미용사회중앙회	김태숙	강남구 방배동 925-5	585-3351	
한국자수협회	김은희	서초구 구반포 본동 67-103	534-1956	
한국우먼스클럽	배영옥	성북구 보문동 2가 56-12	924-5923	
한국여성문화생활회	최순연	강남구 반포동 425-1 반포쇼핑타운 7동520호	533-1906	
국제존타서울클럽	최영옥	성북구 성북동 330-500	764-4445	
한국여성크리스찬클럽	임심연	종로구 평창동 537-9	352-1872	
대한전물군경미망인회	정임심	영등포구 여의도동 12-5	782-2862	
대한약사회약사회	이은련	강남구 서초동 1161-2 막사회관	581-1201	
우리옷합회	김제순	종로구 사간동 74번지	734-9477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김민정	종로구 청진동 286	733-4983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부	조민정	강남구 신사동 585-11 삼미빌딩 501호	549-5161	
대한영양사회	조민정	영등포구 신길7동 1351-3 천복빌딩 704호	842-4334	
국제공공연합전국여성회	정경옥	중구 중림동 355 대용빌딩 610호	392-5601	
통일여성안보회		은평구 녹번동 183-1	357-3977	

편집후기

-이번호에는 지난 11월에 개최한 마스크모
니터 세미나와 소비자보호 세미나의 내용을
특집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두 세미나의 내용을 통해서 모니터링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UR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소비자들의 현명한 대응 자세를 모색해 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또다시 맞이하면서 남
는 아쉬움은 돌아오는 새해에 거는 기대로
덜어봅니다.

모두에게 따뜻한 연말이 되고 조용하고 경건히 지난 해를 돌아보고 새날을 설계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월간여성 • 1990년 12월호 통권 281호
(매월 10일 발행)

●발행: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발행인: 김경오

편집인: 김금래

인쇄처: 코리아 헤럴드

사건식자 : 한라기획

발행일자 : 1990년 12월 10일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427, 428

793-5196, 794-4560

796-4560, 797-5778

Fax : 706 - 4995

● 펴지 : 출판국보이매서

의 외 자 · 기차 2

위 원 : 김기현

신동식 / 오준기 / 최창선

성명 : 장영영

0.848

「여성」구독안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계 의견 수렴을 통한 여성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자활 발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비롯한 회원단체의 사업소개 및 국내외의 여성계 동향, 전반적인 사회문제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여성」의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본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793-5196, 794-4560